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開院 2周年 紀念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3. 4. 8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思想과 理念의 대결시대가 종식되고 경제적 실리와 새로운 민족 자주의식이 태동하는 등 세계적 변화추세 속에서 民族主義가 새로운 의미로 대두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비록 이념과 체제가 상극적인 채로 나뉘어 살고 있지만 남북한은 같은 풍습, 같은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지가 수천년이며 갈라진 것은 불과 반세기도 되지 않는다. 냉전 반세기 동안의 대결과 갈등 때문에 우리의 공통된 민족자산을 잊기 쉬우나 우리 민족 전체의 역사를 볼때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장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필연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民族의 傳統을 확인하고 새롭게 복원하기 위하여 현재 南北韓에 민족주의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民族統一研究院에서는 開院 2周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서는 금번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통일을 촉진하는 이념적 토대를 발전시키는 학문적 토론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3. 4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目 次

| | | |
|--------------------------|-----|-----|
| I. 開會辭 | 李秉龍 | 1 |
| II. 會 議：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 3 |
| 1. 民族主義의 概念 및 韓國民族主義의 特性 | 朴鍾喆 | 5 |
| 2. 主體思想과 民族主義의 關係 | 徐載鎭 | 51 |
| III. 討 論 | | 91 |
| 〈附 錄〉 會議概要 | | 125 |

開 會 辭

오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라는 주제로 민족통일을 향한 새로운 理念的 方向을 모색하기 위한 제 7회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司會者, 討論者로 참여하여 주신 학자·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公私多忙하신 데도 불구하고 이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來賓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내·외적인 통일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統一推進 力量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통일문제 專門研究機關으로 지난 91년 4월 9일 발족된 本 研究院이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느덧 開院 2周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한은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 그리고 그 후속 실천사항을 담은 「附屬合意書」를 발효시킴으로써 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북한의 核開發問題 특히 최근 북한의 核擴散禁止條約 탈퇴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급속 냉각되어 실질적인 화해·협력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7천만 동포가 화해와 자유, 그리고 평화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여 21세기를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로 열어갈 수 있으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통일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신정부 출범이후 統一理念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本 研究院은 開院 2周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民族主義의 概念 및 韓國民族主義의 特性」, 「主體思想과 民族主義의 關係」라는 주제로 學術會議를 개최하여 통일의 이념적 바탕이 될 「민족주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심화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統一問題研究의 지평을 넓히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하여 新韓國의 統一政策方向을 정립하는 데 있어 유익한 學術討論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사계의 專門家 여러분께서 자유롭고 진지한 高見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저희 研究院의 研究陳들이 견해를 발표하고 평가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의 부학자·전문가들의 많은 질정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 하나마 개최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 4. 8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會 議：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司 會：朴 奉 植(서울大 教授)

● 主題發表：

1. 民族主義의 概念 및 韓國民族主義의 特性……………朴鍾喆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2. 主體思想과 民族主義의 關係……………徐載鎮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빈 면

民族主義의 概念 및 韓國民族主義의 特性

朴 鍾 喆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I. 머리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과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두가지의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가지는 민족국가 단위를 초월하는 초국가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국제기구와 초국가적 기업들의 역할이 증대하는 것과 함께 유럽공동체(EC),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 지역공동체형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권에 속해 있던 다민족국가는 단일 민족국가 단위로 해체되는 진통을 겪음으로써 민족단위의 정치공동체가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단위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역사적 경향속에서 18세기 이후 개별적 정치공동체 수준과 국제정치 수준에서 중요한 단위였던 민족국가의 장래를 예측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앞으로 중세와 같이 분권화된 세계질서가 형성될지, 세계정부가 구성될지, 아니면 몇개의 지역공동체권역으로 세계가 구분될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렇게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이는 몇가지 경향들이 상호작용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는 있다.

이와 같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였던 국제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국가가 대내적으로 개인의 삶을 규정짓고 대외적으로 외부세계와 연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더욱이 19세기말 서구로부터 밀려 온 근대화의 충격에 휩쓸려 식민지배와 민족분단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한민족에게 아직까지 민족주의는 달성해야 할 목표로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언’¹⁾과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과 정치·군사적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데올로기 대립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남북통일이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민족주의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민족에게 민족주의는 현재의 각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이념으로서 뿐만 아니라 통일과 번영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분단이후 한국민족주의의 특징을 살펴 보고 통일이념으로서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와 미래상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민족주의의 개념을 고찰하고 민족주의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둘째, 민족주의의 개념 및 유형을 염두에 두고 해방이후 한

1)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대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으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서의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하였다.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참조.

국에서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셋째,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하여 한국사회의 갈등통합원리와 통일이념으로서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II. 민족주의의 개념 및 유형

1. 민족주의의 개념

근대이후 인간들은 민족국가 단위의 정치공동체를 형성하여 대내적으로 정치·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는 각기 대등한 민족국가들간의 경쟁과 세력균형에 의해서 국제질서를 유지하였다. 민족주의는 이러한 근대민족국가 형성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고 때로는 앞장서 이끌고 나간 이데올로기의 한 유형이다.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민족국가 수 만큼이나 다양한 개념이 있다. 이것은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이념적 요인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인의 결합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민족주의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공통특성에 착안하여 잠정적으로 민족주의를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 의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가. 민족주의의 공통기반: 문화적 동질성

역사상 존재하였던 여러 유형의 정치공동체중에서 민족국가는

민족의 단위와 정치공동체의 단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정치체제였다. 근대이후 민족의 단위와 정치공동체의 단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근대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일 따름이다.

민족주의가 발생하는 민족의 공통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언어, 혈통, 종교, 문화, 역사의 공유 등 객관적 요인과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인이 지적된다.²⁾ 민족의 객관적 요인인 언어, 혈통, 종교 등은 포괄적으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문화적 동질성의 존재여부는 민족주의를 유형화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다.

민족주의 연구의 선구자인 콘(Hans Kohn)은 문화적 동질성의 형성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미 형성된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국가건설을 시도한 서구형(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 영연방 등)과 국가건설보다 민족적 동질성 형성이 우선 과제였던 동구형(중부유럽 및 동유럽, 아시아 등)을 구분하였다.³⁾

한편 스위스, 미국, 舊소련, 중국 등이 다민족국가임을 고려하면 민족국가의 형성요건으로서 문화적 동질성이라는 객관적 요인과 함께 민족의식의 형성 및 동질화라는 주관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주의에 대한 자각과 문

2) 차기백, 「민족주의원론」(서울: 한길사, 1990), pp. 45~62.

3)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69), pp. 329~454; 플라메나츠도 동일한 기준에서 서방민족주의와 동방민족주의를 구분하였다. John Plamenatz, "Two Types of Nationalism," in Eugene Kamenka, ed., *Nationalism: The Nature and Evolution of an Idea* (London: Edward Arnold, 1976), pp. 22~36.

화적 동질성을 토대로 정치공동체를 결성하려는 민족의식은 어떻게 발생하였을까? 민족의식의 형성은 자연발생적이라기 보다는 근대이후 유럽을 진원지로 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된 근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도이취(Karl Deutsch)는 민족주의를 근대화로 인한 인구이동과 문자해독율의 증가, 교육기회의 증대 등 「사회적 동원」(social mobilization)에 의한 의사소통의 동질성 증가현상으로 이해하였다.⁴⁾ 도이취는 근대화의 결과로 인한 구조분화와 기능적 전문화로 인해서 사회통합기능으로서 민족주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민족의식의 형성을 설명하였다.

반면 겔너(E. Gellner)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海濔은 지역별·계층별로 차등적 여파를 미치는 불균형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차별화가 인종이나 언어, 종교, 지역, 계층을 기준으로 하여 심화되는 양상을 보일 때 소외된 집단들은 독립국가를 건설하여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겔너에 의하면 민족주의는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균열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집단운동의 중요한 이념적 지주인 것이다.⁵⁾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하청도와 마틴(J. Martin)은 민족주의를 근대화로 인한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집단의식으로 이해하였다. 민족주의는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해소하고 사

4) Karl W.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53) 참조.

5) Ernest Gellner,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4); 어네스트 겔너, “근대화와 민족주의,” 백낙청 편,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1), pp. 148~65.

회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이념이라는 것이다.⁶⁾

이렇게 볼 때 민족주의의 내재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동질성은 자연발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화로 인한 사회구조 및 가치체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족주의는 근대화에 의해 수반된 사회적 균열현상을 치유하고 의사소통체계로서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근대국가건설과 국제체제

민족주의는 근대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우선 민족주의는 근대사회를 배경으로 나타난 정치이데올로기의 하나라는 점이 중요하다. 근대라는 용어는 정치사상사적 의미와 함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정치사상사적 측면에서 볼 때 민족주의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한 개인이성의 발견이라는 자유주의의 기반위에서 진행되었다. 중세의 종교적 권위에서 해방된 개인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정치공동체를 결성할 수 있다는 사회계약이론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민족주의가 자유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였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민주권개념 및 정치참여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민족주의는 근대이후 유럽

6) Chong-Do Hah and Jefferey Martin, "Toward a Synthesis of Conflict and Integration Theories of Nationalism," *World Politics*, vol. 27, no. 3 (April 1975), pp. 361~88.

을 진원지로 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된 ‘역사적 대변화’의 ‘근대성’(modernity)과 상관관계가 있다. 민족주의는 크게 보면 근대화의 여파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치이데올로기의 한 유형인 것이다.⁸⁾ 민족주의는 종교적 권위에서 해방된 개인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일종의 ‘代替宗教’(substituted religion)⁹⁾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민족주의는 근대국가를 형성하려는 정치이데올로기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적 공통성만을 강조하는 문화적 민족주의와 정치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는 구분된다.¹⁰⁾ 유럽에서의 근대국가형성은 연방제나 제국, 종교적 연합체제, 무역공동체, 중세 봉건질서로의 복귀 등 여러가지 가능한 대안중에서 이념적·정치적·군사적·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유럽에서 근대국가 형성

7) 플라니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장경제체제의 형성을 역사적 대전환이라고 설명하였다.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1957) 참조.

8) 근대사회에서 산업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하려는 정치적 대응양식의 하나로 정치이데올로기를 설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Leon P. Baradat, *Political Ideologies: Their Origins and Impact* (New Jersey: Prentice-Hall, 1984), pp. 1~10 참조.

9) 이데올로기는 중세에서의 종교와 같이 현실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세계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종교」라고 불리기도 한다.

10) 이용희는 문화적 동질집단인 「민족」과 근대국가를 형성하려는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를 구분하였으며, 민속학적·인류학적·역사적 공동체라는 의미의 민족적인 것과 근대국가를 형성하려는 집단적 정치의식인 민족주의적인 것을 구분하였다. 이용희, “한국민족주의,” 노재봉 편, 「韓國民族主義」(서울: 서문당, 1977), p. 68.

은 필연적이었다기 보다는 구조적 요인과 우연한 사건들이 중층적으로 누적된 결과였다. 근대국가는 대내적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조직과 상비군, 조세제도 등을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군사국가와 國富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국가, 그리고 식민지국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¹¹⁾

한편 독립된 주권을 표방한 근대국가들로 형성된 국제국가체제는 국가간의 행위를 규제할 상위 규범이나 강제적 권위를 결여함으로써 항구적 불안과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서유럽의 근대국가는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면화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전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유럽지역에 대한 식민지쟁탈전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겼다.

다. 집단의식

민족주의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아니라 집단적 정치의식이다. 민족주의는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화된 세계관과 혁명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강조하며 대중동원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민족주의는 사유체제나 세계관 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목표로 하는 정치이데올로기이다.¹²⁾

민족주의는 이와같이 집단의식이기 때문에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 계급 등 하위 구성단위들의 개별이익과 상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유에서 민족주의는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와

11) 근대국가의 군사국가, 경제국가, 식민지국가 성격에 대해서는 이용희, 「일반 국제정치학상」(서울: 박영사, 1980), pp. 100~241 참조.

12) Baradat, *Political Ideologies: Their Origins and Impact*, pp. 7~10.

결합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이익을 우선시하는 파시즘과 결합되기도 한다.¹³⁾

2. 민족주의의 유형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주의는 유럽이라는 특정한 공간적 배경과 18세기 이후라는 시간적 조건속에서 原型이 형성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켈너는 민족주의의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족에의 소속을 갖는다는 사실은 전혀 자연스럽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유효한 정치적 기준이 민족적 정체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가정은 자연스럽거나 보편적이기는 커녕 오히려 역사적으로 하나의 변칙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다. 현대세계의 최근의 사회적 여건속에는 이러한 가정들로 하여금 그러한 특정 여건 아래서는 자연스럽고 심중팔구 불가항력의 것으로 만드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요소들이 있음에 틀림없다.¹⁴⁾

민족주의는 근대이후 세계를 형성하고 변화시켜 온 여러가지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속에서 등장하였으며 역동적으로 변해왔다. 민

13) 루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이익을 의미하는 특수이익(particular will)과 사회전체의 일반의지(general will)를 구분하고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루소는 자유민주주의자로 해석되는가 하면 전체주의와 내재적 상관성이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William T. Bluhm, *Theories of The Political System* (New Jersey: Prentice-Hall, 1978), pp. 326~49.

14) 켈너, “근대화와 민족주의,” 백낙청 편,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p. 132.

족주의이념은 여러가지 정치·사회적 요인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변화를 야기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지역과 각 나라별로 이러한 여러가지 차원의 요인들의 결합형태에 따라서 민족주의는 다양한 모습을 띠었다.

민족주의의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다.¹⁵⁾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형론보다는 민족주의를 형성·변화시킨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민족주의와 이것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요인중에서 특히 세계체제, 국가·사회 및 계급관계, 산업화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의 전개양상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이중에서 외부요인인 세계체제(세계경제체제와 세계국가체제)와 내부요인인 국가·계급관계는 민족주의의 발생에 관련된 변수이며 산업화유형은 민족주의의 정책방향에 관련된 변수이다.

15) 콘(Hans Kohn)은 서구형 민족주의와 비서구형 민족주의를 구분하였으며, 스나이더(Louis Snyder)는 통합적 민족주의(integrative nationalism), 분열적 민족주의(disruptive nationalism), 공격적 민족주의(aggressive nationalism), 현대 민족주의(contemporary nationalism)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헤이스(C. Hayes)는 인도주의적 민족주의(humanitarian nationalism), 자코뱅 민족주의(jacobin nationalism), 전통적 민족주의(traditional nationalism),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 통합적 민족주의(integral nationalism),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로 구분하였다. 진덕규, 「현대민족주의의 이론구조」(서울: 지식산업사, 1983), pp. 83~93; 김영작, “「Nationalism」의 원리와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상의 위상,” 「국제정치논총」, 제 23집 (1983), pp. 65~69.

가. 민족주의의 유형변수

(1) 외부요인: 세계경제체제와 세계국가체제

세계체제는 국제적 노동분업 구조로 이루어진 세계경제체제와 국가간 정치·군사관계로 이루어진 세계국가체제로 구분된다. 민족국가가 국제환경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족주의가 세계경제체제 및 세계국가체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월러스타인(I. Wallerstein)은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노동분업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중심부(영국, 네덜란드, 북부프랑스), 반주변부(스페인, 이탈리아, 남부프랑스), 주변부(동유럽과 중남미)로 권역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월러스타인에 의하면 세계경제체제내에서 각 지역의 위상과 각 지역 내부의 계급관계로 인하여 중심부에는 절대주의시대에 강한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반주변부와 주변부에서는 각각 상업자본가와 대지주의 직접적 계급지배로 인해서 중앙집권화된 국가형성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¹⁶⁾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을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품과 자본의 불균등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경제체제속에서 민족국가가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세계경제체제의 성격 및 그 속에서 각 국가의 위상은 각 나라의 민족주의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16)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 System I*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2장, 3장, 5장 참조.

한편 국가간 정치·군사적 관계, 지정학적 위치 등은 세계경제 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지만 반드시 경제적 관계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톨리(Charles Tilly)는 근대 유럽에서 소수만이 근대국가 건설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의 자원추출능력, 지정학적 위치, 정치지도층의 지속적 충원여부, 전쟁에서의 승패 등의 요인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톨리는 국가간 대립과 전쟁으로 인해서 영토의 확정, 중앙집권적 관료기구의 정비, 조세확대, 재무기구의 발달,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 등과 같은 근대국가의 특징들이 완비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만들었다”고 지적된다.¹⁷⁾

공동체간 갈등과 전쟁은 소속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고전적 이유중의 한가지다. 고대부터 전쟁에 처한 공동체는 내적 응집력을 강화하고 소속집단의 신화를 부각시켰으며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였다. 근대민족국가의 경우 이러한 집단신화의 조작과 자원동원능력이 고대 공동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다.

이처럼 세계경제체제에서의 위상과 세계국가체제의 성격은 각 지역 및 국가의 근대국가형성과 민족주의의 특성에 중요한 영향

17) Charles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and “Western State-Making and Theories of Political Transformation,” in C.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Charles Tilly,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in Peter Evans, D.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전상인, “톨리의 국가건설 비교연구,”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2』 (서울: 열음사, 1992), pp. 97~119.

을 미치는 외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2) 내부요인: 국가·사회, 계급

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집단을 단위로 하지만 실제로 ‘민족’은 다양한 하위집단과 계급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세력이 어떤 이유로 민족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각 나라의 국가·사회간 역학관계, 계급관계 등에 따라서 민족주의의 구체적 내용과 전개과정이 달라진다.

무어(Barrington Moore Jr.)는 상업농업화정도, 상업자본가 및 산업자본가의 형성정도, 국가와 계급간의 상호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대세계에 이르는 세가지 경로를 개념화하였다. 무어에 의하면 근대화로 이르는 경로는 대체로 민주주의체제(영국, 프랑스, 미국), 파시스트체제(독일, 일본), 농민혁명에의한 사회주의체제(중국, 러시아) 등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¹⁸⁾

근대세계에 이르는 세가지 경로에 관한 무어의 견해를 참고하면, 민주주의 유형은 자본가계급이 패권적 지위를 점유하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경우이다. 그리고 파시스트 유형의 경우, 국가관료와 대지주, 산업자본가들이 동맹을 형성하여 위로부터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이념은 동원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 경우 독일의 반유대인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에서와 같이 민족주의의 호전적이며 비이성적인 특성이 표출되었다.

18) Barrington Moore,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1966) 참조.

한편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발생한 경우 외부의 군사적 압력과 자본주의 경제의 확산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적 상징이 혁명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농민동원을 통한 장기간의 혁명전쟁이 진행된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혁명과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었다.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된 근대화는 전통사회의 각 계급에게 상이한 충격을 주게 되며 그에 따라 각 나라의 민족주의의 전개양상이 다르게 된다. 켈너는 근대화의 충격에 가장 민감한 계층으로 지식인과 노동자계급을 들었다. 근대화로 인해 전통사회로부터 유리된 지식인과 한계상황에 처한 노동자는 민족주의운동의 주도세력이 된다는 것이다.¹⁹⁾ 스미스(Anthony D. Smith)는 켈너의 기본 전제들을 수용하면서도 민족주의의 주도세력은 지식인과 노동자 외에 다양한 계층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계급간의 연합에 따라 민족주의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²⁰⁾

이와같이 각 지역과 나라별로 국가·사회간 상대적 관계와 계급간 역학관계에 따라서 민족주의의 내용 및 전개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주의운동도 다양한 사회운동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주도세력의 성격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19) 켈너, “근대화와 민족주의,” 백낙청 편,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pp. 149~56.

20) Anthony D. Smith, *Theories of Nationalism* (London: Duckworth, 1983), pp. 109~50.

(3) 민족주의의 정책방향: 산업화유형

국가간 군사적 갈등과 함께 국가간 경제적 경쟁도 민족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경제체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자본 및 상품의 이동이라는 자유무역주의 측면과 함께 일단 국경선에서 자본 및 상품의 이동이 통제되는 보호무역주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근대이후 세계경제는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간의 긴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산업화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산업화의 시점(timing)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산업화의 선두주자인 서유럽에서는 자본가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하여 토지귀족과 종교세력의 기반을 약화시킨 뒤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추구하였다. 이 경우 민족주의는 자유무역주의와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스미스(Adam Smith)는 국가의 시장개입 최소화화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한 상업자본가 및 산업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했다.

후발산업국가일수록 1세대 산업국가를 따라잡기 위해서 국가의 경제개입을 중시하게 된다.²¹⁾ 후발산업국가의 국가주도산업화는 國富를 중시하는 重商主義(mercantilism)경향을 띤다. 중상주의는 첫째, 국제경제관계를 경쟁적이며 제로섬관계로 인식한다. 이 점에서 중상주의는 국제경제를 상호협력적이며 넌제로섬관계로 인식

21) 거셴크론은 후발산업국가의 경우 첫째, 산업화를 급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둘째, 대기업의 중점육성에 의해서 독점기업이 형성되며, 셋째, 국가와 관료 기구의 통제하에 산업화가 추진된다고 지적하였다. Alexa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pp. 31~51.

하는 자유무역주의와 대비된다. 둘째, 중상주의는 국제무역수지의 흑자를 중시한다. 셋째, 중상주의는 國富增大를 위해서 무역정책 뿐만 아니라 생산, 고용, 재정, 금융정책 등에 대한 정부간섭을 정당화한다.²²⁾ 후발산업국가의 이러한 중상주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내포한다. 리스트(F. List)의 보호무역주의는 당시 후발산업 국가였던 독일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후발산업국가에서 중상주의 산업화정책이 추진될 경우 민족이익 및 국가이익이 강조되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독일과 일본에서의 위로부터의 근대화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었으며 그결과 파시즘과 군국주의의 이름아래 동원적이고 팽창주의적 민족주의가 나타났다.

후발전국가(late-late development state)라고 할 수 있는 3세계의 3세대 산업화국가들은 2세대 산업화국가에 비해서 한층 열악한 조건속에서 산업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산업화전략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그만큼 더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월러스타인은 주변부국가는 첫째, 기회포착전략(strategy of seizing the chance), 둘째, 초대에 의한 발전전략(strategy of semiperipheral development by invitation), 셋째, 자립전략(strategy of self-reliance)에 의해서 반부변부로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³⁾ 월러스타인의 구분을 따른다면 기회포착전략을 택한 나라들은 세계

22) James Mayall,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Socie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70~74.

23) Immanuel Wallerstein, "Dependence in An Interdependent World: The Limited Possibilities of Transformation with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in I. Wallerstein, ed.,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 76~83.

경제의 수축시 수입대체산업정책을 채택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이다. 이들은 1930년대 공황으로 중남미에 대한 유럽의 경제적 압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정책에 입각해서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신흥 공업국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세계경제의 팽창기에 국가와 외국자본의 연계에 의해서 중상주의적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쿠바, 탄자니아, 북한 등은 사회주의발전전략에 입각하여 자력갱생을 모색했다. 이 중에서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전략과 자력갱생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반제국주의적 요소와 민주동원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화의 시점, 국가와 자본·해외자본간의 관계, 산업화주도세력, 산업화정책 등에 따라서 민족주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24) 시민민족주의는 중산층 민족주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국민주의 등으로 불릴 수 있다. 이용희는 시민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용희, “한국 민족주의,” 노재봉 편, 『韓國民族主義』, pp. 15~19; 최상용은 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가 국민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국민주의는 프랑스혁명의 중산층 내셔널리즘이고, 국가주의는 파시즘으로 연결되는 팽창적 내셔널리즘이며, 민족주의는 반식민지 내셔널리즘이라고 지적하였다. 최상용,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민족주의,” 최상용,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서울: 나남, 1989), p. 346; 김영작도 내셔널리즘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최상용과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내셔널리즘을 번역하지 않고 내셔널리즘이라고 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작, 『한말내셔널리즘연구』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p. 2~3 각주 2 참조; 본 논문에서 시민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자본가계급이 경제적 계급의 성격을 벗어나서 시민문화라는 보편적 문화를 창출하고 시민사회라는 공공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성격을 지니게 된 점을

나. 민족주의의 유형

이상에서 민족주의의 발생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서 외부요인(세계경제체제와 세계국가체제), 내부요인(국가·사회, 계급), 민족주의와 산업화전략 등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다음에는 이러한 변수들을 염두에 두고 민족주의의 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1) 시민민족주의²⁴⁾

시민민족주의 유형에 속하는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다. 이들은 1세대 산업화국가로 자본가계급의 주도하에 봉건질서를 타파하고 근대국가모델을 만들었으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자본가계급은 시장경제의 확산과 국민경제형성의 가장 큰 수혜자였으며 식민지경영으로부터 획득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재분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시켰다. 그리고 자본가계급은 교육, 종교, 언론 등을 통한 문화정책에 의해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사회의 정당화 메카니즘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시민사회의 헤게모니²⁵⁾를 확립하였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5) 그람시(A. Gramsci)는 자본주의사회가 국가와 시민사회, 경제사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민사회는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외에 문화와 규범, 가치의 정당화에 의해서 헤게모니(hegemony)라는 포괄적 동의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機動戰에 의해서 국가의 물리적 강제기구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자본주의사회가 붕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최장집,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최장집, 「한국현대정치외교의 구조와 변화」(서울: 까치, 1989), pp. 11~36.

(2) 국가민족주의

국가민족주의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나타났다. 이 나라들은 2세대 산업국가로서 1세대 산업국가들의 경제적 압력과 군사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로부터의 국가건설과 산업화를 추구하였다. 자본가계층이 미약한 상황에서 국가와 대지주, 신흥자본가들이 연합을 형성하였으며 독점기업은 산업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국가민족주의는 인종우월주의를 강조하거나(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국가의 위신과 영광을 신비화함으로써 개인보다 집단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다. 그리고 전체로서의 민족이익과 국가와 사회의 유기체적 통합이 강조됨에 따라 노동부분에 대한 조합주의적 통제방식²⁶⁾이 적용되었다.

(3) 사회주의혁명과 민족주의

사회주의 혁명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회주의혁명이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유럽의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가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주의혁명은 저개발국가가 근대국가건설과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택한 급진적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카우츠키(J. Kautsky)는 지도층의 성격과 급속한 공업화정책의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저개발국가의 공산주의

26) 최장집은 민족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와 노동과 자본간의 유기체적 조화를 강조하는 코포라티즘이 접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제노동분업구조와 자본주의경제의 현실속에서 계급갈등을 완화시키고 국제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코포라티즘은 민족주의와 상관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최장집, “민족주의와 코포라티즘,” 최장집, 「한국현대정치외교의 구조와 변화」, pp. 59~70.

체제와 비공산주의 동원체제가 사실상 동일한 범주에서 취급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²⁷⁾

쟁아스(D. Senghass)는 세계체제에서 주변화압력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국제경제체제로의 편입을 목표로 하는 연합전략과 국제경제로부터 단절하여 내수시장확대를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쟁아스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주의국가는 주변부 국가로서 선진산업국가를 추격하기 위하여 민족국가단위로 사회주의 발전전략을 택한 나라인 것이다.²⁸⁾

2차대전후 탄자니아와 쿠바, 베트남, 북한, 리비아 등은 반식민주의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중요한 상징으로 동원하여 대내적 통합을 달성하고 급격한 산업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들 나라에서 식민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신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은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動因이 되어 왔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호전성과 세계체제로부터의 단절·고립은 이들 체제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은 사회주의이념을 각기 전통문화유산과 접목시킴으로써 혼합물형태의 변형민족주의를 만들기도 하였다(탄자니아의 우자마사회주의, 리비아의 아랍사회주의, 북한의 주체사상 등).

27) John H. Kautsky, *Political Chang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ationalism and Communism*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2), pp. 57~122.

28) 쟁아스에 의하면 국제경제로부터의 단절전략은 단절·내생적 유형(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19세기 미국), 단절·국가자본주의 유형(일본, 이탈리아), 단절·국가사회주의·유형(사회주의국가)으로 구분된다. Dieter Senghass, *Von Europa Lernen*, 한상진·유팔무 역,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서울: 나남, 1990) 참조.

(4) 신흥공업국의 중상주의적 민족주의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유교의 문화적 전통과 강한 국가의 전통, 미국의 안보우산 등을 적절히 이용한 수출산업화정책을 통해서 반주변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들은 아시아의 문화적 유산과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결합한 권위주의적 방식에 의해서 산업화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대만은 분단국으로 국제적 냉전과 국내적 냉전이 결합된 상황에서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보다는 중상주의적 민족주의를 실용주의적으로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한국과 대만은 先경제건설 後통일노선에 입각하여 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Ⅲ. 한국민족주의의 특성

남북분단후 한국민족주의는 운동의 실체로서의 활력을 상실하고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거나 민주화, 경제발전, 통일 등 다른 문제와의 관련속에서 간접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이처럼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인이 작용하였다.

첫째, 일제식민지배의 경험과 남북분단은 19세기 이후 근대화의 충격에 대한 한국민족주의의 실패였다. 근대국가 건설과 근대화를 이룩하려는 여러 종류의 운동이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식민지로 전락된 경험과 남북분단의 현실은 한국민족주의를 내면으로 침잠케 하는 일차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남북분단 현실은

한편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열망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현실속에 안주하는 체념을 낳기도 하였다.

둘째, 유럽이나 대다수의 제3세계 국가와 달리 한민족은 민족적 동질성과 단일국가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근대적 민족주의의 형성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²⁹⁾ 단일민족의 공통성을 당연시함으로써 근대적 가치관과 규범에 근거한 민족주의의 근대적 성격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민족주의가 대외적 저항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반면 대내적 갈등통합의 원리로서의 측면이 약한 원인이기도 하다.

셋째, 해방후 한국의 국가는 식민지시대에 과대성장된 국가를 기반으로 하여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의 발전정도와 관계없이 위로부터 형성되었다.³⁰⁾ 지배세력은 민족주의 이념에 의존하거나 대중을 동원하지 않고 세계적 냉전과 분단구조에 편승하여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한 국가건설과정에서 민족주의이념이 중요한 상징적 자원이 되었던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는 국가 건설과정에서 민족주의 이념이 표출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

29) 이와 관련하여 노재봉은 한국에서는 문화적 공통성을 지닌 단일민족이라는 요인때문에 낭만적 민족주의가 존재하며 그 때문에 한국민족주의가 활력을 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노재봉, “한국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양호민 외, 「한국민족주의의 이념」(서울: 아세아 정책연구원, 1977), pp. 229~34; 손세일도 한국민족주의의 단일민족주의적 성격은 정치이데올로기로서 발전하기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손세일,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서울: 민음사, 1983), p. 132.

30) 최장집,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 「한국사회연구 3」(서울: 한길사, 1985), pp. 183~216.

다.

넷째, 세계경제체제와 세계국가체제와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국가주도하에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산업화가 추진됨으로써 경제적 민족주의가 전면에 내세워질 수 없었다. 국가는 민족주의적 이념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본과 기술의 합리적 배분과 시장조건에의 순응을 일차적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이 식민통치의 경험과 분단현실, 단일문화전통, 위로부터의 국가건설과정, 중상주의적 산업화 등이 한국에서 민족주의의 활력을 약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보면 해방이후 한국정치의 흐름속에는 이와같은 여러가지 제약속에서도 민족주의를 재해석하고 부활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³¹⁾

본 논문에서는 해방이후 한국민족주의의 특징을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라는 측면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지배세력이 민족주의의 대내외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지니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지배세력의 정책과 정책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한 저항세력들의 입장을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조명한 것이다.

31) 진덕규는 한국에서 현대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일민민족주의(1945-1950년대), 계몽적 민족주의(1960년대 초), 교도적 민족주의(1962-1967년), 산업화 민족주의(1967-1972년), 국가민족주의(1970년대 후반), 민족주의대립(1980년대 이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공식화되지 않고 국가이념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국가민족주의와 민중민족주의의 대립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진덕규,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분단체제형성에 대한 민족주의적 인식,” 「한국문화연구원논총」, 59권 2호 (1991) 참조.

해방후 한국민족주의는 이러한 두가지 유형의 정치이념과 정책 프로그램간의 갈등과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두가지 형태의 민족주의를 첫째 외부요인인 냉전체제와 분단, 둘째 내부요인인 국가·사회관계, 셋째 산업화정책이라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 보 고자 한다.

1. 위로부터의 민족주의

가. 외부요인: 냉전체제와 분단

해방후 한국민족주의의 성격을 규정한 일차적 요인은 국제적 냉전체제이다. 2차대전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일차적 관심은 경제적 인 것보다는 정치·군사적인 것이었다.³²⁾ 한국은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간의 세계적 대결에서 동아시아지역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국의 헤게모니하에서 군사적 안보가 보장됨으로써 한국의 집권층은 군사적 안보를 위해서 사회로부터의 자원추출에 힘쓰거나 민족주의 이념에 호소하기보다는 미국과의 후원·수혜 관계(patron-client relation) 유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해방후 분단상황과 좌·우이념대립은 민족주의의 활동공간을 극도로 제약하였다. 더욱이 3년간에 걸친 한국전쟁은 남북한을 극단적 이념대립과 체제대결로 몰아갔다. 전쟁을 치른 당사자가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이념대결을 넘어설 수 있는 민족주의의 포용범위는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반공과 안보제일주의는 정치적 경쟁구조의 제도화를

32) 임현진·권태환, “국가와 국제정치·경제체제: 한국에서의 중속적 발전의 경험,” 「한국사회학연구 7」 (서울: 한울, 1984), p. 69.

제약하였다.³³⁾ 남북 대치상황과 북한의 빈번한 도발 등으로 인하여 민족주의적 상징을 동원하려는 정치적 반대세력은 ‘용공주의자’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경쟁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경쟁은 보수세력간의 권력투쟁으로 한정되었으며 각종 연줄망을 동원하려는 파벌대립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나. 내부요인: 국가와 사회,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민족주의가 대외적 측면과 함께 대내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민족주의는 19세기말 이후 일제식민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대외적 측면인 저항민족주의의 측면만이 강조되었다. 더욱이 남북분단과 좌·우이념대립으로 말미암아 민족주의의 대내적 측면이 구체화될 계기가 없었다.

서구의 경우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결합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국제냉전의 결과로 외부로부터 주입되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무관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우위에 서는 현상이 나타났다.³⁴⁾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완제품으로 수입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념의 역사적·사회적 함의(connotation)는捨象된 채 그 外意(denotation)만이 고려되어 마치 보편적 원리처럼 취급되었다.”³⁵⁾

33) 안병준은 한국에서 반공과 안보제일주의가 동일시되었으며, 안보는 북으로부터의 안보유지와 국내급진세력의 도전으로부터의 체제유지라는 대내적 안보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안병준, “한국에 있어서 국가, 사회 및 정치,”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서울: 법문사, 1986), pp. 333~34.

34) 노재봉, “한국민족주의와 자유주의,” pp. 221~22.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처럼 사회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내재화시킬 헤게모니 계급이 결여된 채 외부로부터 부여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반이 허약하였다.³⁵⁾ 그러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과 동일시되었으며 국가가 반공을 국가이념으로 내세움에 따라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의 헤게모니를 확립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³⁷⁾ 그리고 미국이라는 후원국가가 국제적 냉전의 이데올로기 대결수단으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헤게모니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국가가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의 내면화보다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외면적 의미만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보수지배세력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의 저항을 허용하지 않는 비탄력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³⁸⁾

중남미의 수입대체산업화 과정에서는 중산층과 노동층, 수입대체산업가들로 구성된 민중연합이 형성되었다.³⁹⁾ 그러나 한국의 수

35) 박상섭, “한국정치와 자유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p. 412.

36) 위의 논문, p. 413.

37) 임현진, 백운선, “한국에서의 국가자율성,”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p. 230.

38) 박상섭, “한국자본주의와 정치체제: 기능주의적 환원론의 극복을 위한 시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정치의 현대적 조명」(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p. 471~72.

39) 중남미의 수입대체산업화와 민중주의연합에 대해서는 Albert O. Hirschman, “The Political Economy of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 in Albert O. Hirschman, *A Bias For Ho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pp. 85~123 참조.

입대체 산업화는 미원조물자의 배분 및 가공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관료와 자유당, 수입대체 산업가들은 중산층 및 노동자층과 연합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더욱이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급진적 민족주의를 상실하고 체제순응적으로 되었으며, 지주들도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1950년대 한국의 보수연합세력은 수입대체산업에 반대하는 지주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민중적 민족주의연합을 형성할 필요도 없었다. 보수연합세력이 자유민주주의이념을 표면에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물리적 강제력과 선거조작에 의해서 정치적 지배를 지속하고자 함에 따라 정치이념과 정치현실간의 괴리가 커졌다.

5·16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엘리트는 군사정권 초기에 '내포적 산업화정책'⁴⁰⁾을 내세우고 농어촌 고리채정리, 화폐개혁, 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 민중주의적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민주공화당을 조직하여 '민족적 민주주의'노선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⁴¹⁾ 그러나 '민족적 민주주의노선'은 군부지도층 내

40) 군부의 집권초기 경제정책을 이념대결보다 국가이익우선, 기간산업육성을 통한 국민경제건설, 경제계획과 국가의 역할 중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포적 산업화정책」이라는 시각에서 설명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기미야 다다시, "한국의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Ho-Yeol Yoo, "A New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Policy Change in South Korea, 1961-1963: Crisis, Uncertainty, and Contradict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0) 참조.

41) 김용호는 한국의 민주공화당과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을 헤게모니적 정당 (hegemonic party)의 틀에서 비교하고 민주공화당은 경쟁적 정당정치의 경험, 정당내의 이질성, 민중주의 정책의 결여, 국가기구에 대한 당의 통제력 미약 등의 요인때문에 헤게모니적 정당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김용호, "권위주의리더쉽과 패권정당운동: 한국과 멕시코분석," 한국정치학회 편, 「민족공동체와 국가발전」 (서울: 박영사, 1989), pp. 223~39.

부의 정책대립과 미국의 압력, 동원적 정당에 대한 보수세력의 거부감 등으로 말미암아 중도에서 변질되었다. 더욱이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이거나 반제국주의적·반미적인 상징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⁴²⁾

1공화국의 보수지배세력이 외형적 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했던 것과 달리 3공화국 이후 집권층은 반공과 함께 경제발전을 국가이념으로 내세웠다. 반공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이념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질적으로 반공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유보될 수도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적 민주주의’, ‘생산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들이 제시되었다.

유신체제는 안보와 경제발전주의가 극단적으로 결합된 통치체제였다.⁴³⁾ 유신체제의 집권층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고수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였으며 대중동원을 위하여 민족주의이념을 이용하지도 않았다. 그대신 권위주의적 통제와 위로부터의 총력체제 구축⁴⁴⁾

42) Jae-Souk Sohn, "Political Dominance and Political Failur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Henry Bienen, ed., *The Military Interven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8), p. 115; Sung-Joo Hah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1961-1984," in Robert A. Scalapino, Seizaburo Sato, and Jusuf Wanandi, eds., *Asia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 129.

43) 진덕규는 군부의 이념적 성향이 반공과 발전주의를 결합한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진덕규, "한국현대정치체제연구서설," 「한국사회변동연구 1」(서울: 민중사, 1985), p. 48.

44) 김영명은 유신체제를 분단상황에서 총력체제구축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김

에 의해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신체제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한국의 산업화는 냉전체제와 분단의 구조적 조건이 적절히 활용된 결과였으며 그 부산물로 급속한 경제성장이 수반되었다. 위로부터의 산업화는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의 다원화를 가져왔다. 위로부터의 산업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권위주의체제는 민주화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역설적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산업화를 통해 시민사회를 성장시킴으로써 사회로부터 포위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은 1987년의 민주화투쟁과 대통령직선제 실시, 1992년의 문민정부의 탄생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 산업화정책: 원조경제체제에서 중상주의적 산업화로

1950년대에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수입대체산업화를 추구하였다. 상업자본가와 관료, 정치인들은 군사원조로 제공된 미잉여농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경쟁하였다.⁴⁵⁾ 1공화국의 자유당정권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

영명, “한국의 정치변동과 유신체제,”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pp. 377~408.

45) 제1공화국의 수입대체산업정책의 정치경제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박종철, “1공화국의 국가구조와 수입대체산업의 정치구조,” 「한국정치학회보」, 22집 1호 (1988), pp. 97~118.

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기반 또한 미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정당성기반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5·16후 군부정권 초기에 민주주의적 발전전략이 실패한 뒤 국가주도 수출산업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위로부터의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국가주도 수출산업화정책은 민주주의적 에너지를 동원하려던 초기 정책에서 벗어나서 신중상주의적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산업정책이었다.

신중상주의는 서유럽의 경제적 민족주의의 한 유형이었던 중상주의가 현대적 상황에서 재현된 것으로 수출주도와 보호무역주의, 공업위주의 불균형적인 발전전략, 先성장 後분배, 경제력 향상을 통한 국력배양 등을 목표로 한다.⁴⁶⁾ 한국의 신중상주의 산업화전략은 지도자본주의(guided capitalism)의 형태로 나타났다.⁴⁷⁾ 서구에서 자본가가 자본축적에 의해서 시민사회의 해계모니를 장악하고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국가가 자본가를 육성·보호하였다. 한국의 신중상주의정책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군사력증강을 위한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한층 중요한 동기를 부여 받았다.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정책의 추

46) 박광주, “집정관주의적 신중상주의국가론,”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pp. 194~96; 애펬터(D. Apter)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경제발전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강제력보다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정치체제를 신중상주의체제(Neo-mercantilism)라고 정의하였다. David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p. 391~416.

47) 박광주, “한국적 지도자본주의론에 관한 고찰,” 「현대사회」, 28 (1987 가을), pp. 57~83.

진과정에서도 산업구조의 심화라는 요인외에 방위산업의 육성이 라는 군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⁴⁸⁾

신중상주의적 지도자본주의에 있어서 국가는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시장형성자 역할'과 '시장순응자 역할'을 신축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한국의 국가는 재정·금융정책, 외환정책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정책조정을 통하여 시장의 작동구조와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업가의 투자를 촉진하는 '시장형성자 역할'을 수행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시장형성 역할이 지나쳐 시장경제의 메카니즘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장순응자 역할'을 해야 했다.⁴⁹⁾

국가가 '시장형성자 역할'에 충실하여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거나 해외자본의 직접투자를 규제할 경우 국가이익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재벌의 부정축재처리(1960년, 1961년)와 부실기업정리(1969년)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는 개별 자본가의 이익보다는 국가이익을 위한 산업조정이라는 민족주의적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5·16후 부정축재처리의 불완전성, 8·3조치(1972년), 중화학공업 투자조정과정(1979~1981년)에서 초국가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은 국가가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48)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배경과 투자조정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박종철, "산업화와 국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배호 외,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서울: 법문사, 1992), pp. 178~203.

49) 임현진·김병국,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 국가·자본·노동관계의 한국적 현실," 「사상」(1991 겨울), pp. 122~30.

한국의 신중상주의적 지도자본주의는 국제적 냉전구조와 남북 분단구조 속에서 先성장 後분배, 先성장 後민주화, 先성장 後통일의 목표를 내세웠다. 이것은 냉전체제와 분단현실에 정면도전하기 보다는 위로부터의 자원동원과 권위주의적 방식을 결합한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였다.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실질적으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민주화와 통일을 이끌어 나갈 주역인 시민층을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냉전체제와 분단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제약, 국제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 계층간·지역간 갈등 수반 등으로 인하여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의 도전에 시달렸다.

2.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

가. 외부요인에 대한 저항: 종속에 대한 비판과 탈종속의 모색

해방후 국가건설과 산업화가 냉전체제와 분단구조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만큼 한국의 대외규정성, 특히 대미의존은 체제비판세력의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한·미간 후원·수혜관계에 대한 비판은 상황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반미감정에서부터 집단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50년대 대미비판은 주로 보호자로서의 미국의 오만함과 불성실함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미의존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반미의식이 표면화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는 3공화국의 집권층과 반대세력간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킨 중요한 계기였다. 집권층은 정권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확보라는 현실적 이유에서 한일국교정상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반일감정의 폭넓은 공감대때문에 이 문제는 반대세력의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반대세력의 비판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굴욕적 외교자세 및 협상과정의 비공개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 이유는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집권층과 일본의 기업가 및 한국의 기업가간에 유대망이 형성됨으로써 일본자본이 한국에 재상륙할 것에 대한 염려때문이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국제분업체계가 형성되어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었다.

1980년 광주사태로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과 반미주의의 성격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5·16, 광주사태 등과 같이 한국의 중요한 정치변화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비판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비판은 냉전체제 형성과 남북분단, 한국전쟁 등에 있어서 미국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의 민주화보다는 정치안정과 군사적 안보를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한국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과 지속을 묵인내지 지원한다는 논리도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반미의식은 1982년 3월 미문화원방화사건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광주사태를 계기로 반체제세력은 미국이 단순히 한국에서 그들의 정치·군사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한·미관계는

혈맹관계이며 정치·군사적 후원·수혜관계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경제적 지배와 종속의 구조적 관계’로 인식되었다. 1980년에 나타난 급진적 반미운동은 여러가지 갈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미국을 제국주의국가로 규정하고 한국의 식민지적 종속성과 한국지배층의 매판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⁵⁰⁾요컨대 1980년대의 반미운동은 해방이후 한국의 국가형성과 산업화의 배경이 되었던 한·미관계와 국제경제체제로의 편입, 중상주의적 산업화전략 등을 ‘구조적 종속’이라는 급진적 시각에서 비판하였다.⁵¹⁾

급진적 반체제세력은 탈종속의 대안으로 국제분업체제로부터의 탈퇴와 자립경제체제(autarky)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바로알기운동’과 주체사상의 수용이 시도되었다. 대외종속에 대한 비판은 민족주의적 감정을 불러 일으킬 요소를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급진적 반체제세력은 한미관계를 제국주의적 지배·종속 관계로 규정하고 비현실적인 폐쇄체제를 모색함과 동시에 북한편향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논리적 설득력과 지지기반을 상실하였다.

50)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과 관련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론, 식민지반자본주의론,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신식민지파시즘론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서 민족해방파(NL파)와 민중민주주의파(PD파)로 구분되었다.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1, 2」(서울: 죽산, 1989) 참조.

51) 장달중, “반미운동과 한국정치,” 김덕중 외, 「한·미관계의 재조명」(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pp. 123~43.

나. 내부요인에 대한 저항: 민주주의의 회복에서 민중민주주의로

1950년대에 집권층과 반대세력간의 주된 쟁점은 자유민주주의의 충실한 실천에 대한 것이었다. 권위주의적 통치를 민주주의이념으로 정당화시켜야 하는 문제야말로 자유당정권이 직면한 최대의 딜레마였다. 집권층은 자유민주주의를 반공과 동일시하고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였지만 공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반대세력의 비판은 자유당정권의 비민주성과 민주주의원칙에서의 이탈에 대한 것이었다. 외부에서 주어진 자유민주주의의 헤게모니하에서 실질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지닌 보수세력들이 민주주의 對 독재라는 이분법을 중심으로 경쟁하였던 것이다.

3공화국에 들어서서 집권층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보할 수도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는 집권층의 정당화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3공화국 초기 반대세력의 주된 공격은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것이었다. 5·16후 학생들의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은 민족주의를 표방한 새로운 대외의존관계 형성과 독재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 산업화의 진전으로 사회적 갈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반대세력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점차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반체제운동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학생과 지식인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과 연계하는 양상을 띠었다.

1970년대말 이후 대외적 종속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반체제세력은 의회민주주의의 회복이 아니라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민중 및 민중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⁵²⁾ 실천적 차원에서 민중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피지배층의 연합을 의미하였다. 민중민주주의론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속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지배층의 이익을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민중연합혁명에 의해서 부 및 권력의 분배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제국주의적 종속관계로부터의 탈피와 계급지배의 철폐를 목표로 한 민중민주주의는 해방후 여러갈래로 잠재화되어 있던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가 가장 급진적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편성을 획득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 산업화로 인한 중산층의 형성, 남북분단의 현실 등으로 인하여 급진적 변혁운동의 활동공간은 극도로 협소하였으며 정치적 실체로서의 기반을 상실하였다.

52) 박현채는 민중이 노동자계급을 기본으로 하여 농민, 소상공업자, 도시빈민, 진보적 지식인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박현채, “민중의 계급적 성격규명,” 김진균 외,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1』 (서울: 한울, 1986), pp. 49~56; 한완상은 민중을 총체적으로 피지배층으로 정의하고, 對自的 民衆으로서의 중산층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완상, 『민중과 사회』 (서울: 종로서적, 1980), pp. 39, 79; 한상진은 중산층과 민중에의 귀속의식을 동시에 지니는 「중민」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중산층과 민중의 개념적 통합을 시도하였다. 한상진, 『중민이론의 탐색』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1), pp. 65~66.

다. 분단극복과 통일운동

분단상황에서 통일문제는 남북한 지역의 영토적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념대결 및 남북한 각각의 체제유지와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 시각에서의 통일문제 제기는 국제냉전구조와 반공이념에 대해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적으로 보수지배세력의 정당성을 잠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통일문제논의는 체제문제와 직결된 금기사항에 속했다. 1공화국에서 자유당정권의 북진통일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평화통일론을 제시하였던 진보당은 당수가 사형되고 당이 무효화되는 운명을 맞았다.

4·19후 학생들과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통일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장면정부의 유엔감시하 총선에 의한 평화통일론에 대해서 진보세력들은 구체적 입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미군철수, 남북교류, 중립화통일론 등을 주장하였다.⁵³⁾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개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4·19후 다양한 통일론의 전개는 분단극복과 민족주의의 과제를 확대된 정치적 공간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통일론의 제기는 보수세력과 군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3공화국과 유신체제기간동안 반체제세력의 비판은 주로 한일국교정상화, 3선개헌반대, 유신반대 등에 집중되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반체제세력은 통일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학생

53)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서울: 종로서적, 1983), pp. 89~94, 171~96.

및 재야의 다양한 통일론은 크게 보면 先민주 後통일론과 先통일 後민주화론으로 구분된다. 先민주 後통일론은 통일방법과 통일절차 및 통일후 체제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우선적으로 중요시한다. 반면 先통일 後민주화론은 모든 형태의 통일은 다 좋다는 統一至上論에서부터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견해, 통일을 위해서 반미자주화와 파시스트체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을 포함하였다.⁵⁴⁾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냉전체제와 분단구조 및 그러한 구조적 틀내에서 진행된 중상주의적 산업화에 대해서 도전하였다.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국가이념으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 원리의 실질적 실천을 주요 이슈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3공화국 이후 산업화로 인한 갈등이 나타남에 따라 급진적 내용의 민중민주주의론이 제기되었으며 통일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였다.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급진화·혁명화됨으로써 활동반경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빚었으며 대중적 지지기반도 상실했다. 이와같이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하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민주화와 통일문제의 중요성을 계속 환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통일문제를 체제내로 수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54) 이정복, “남한의 비정부차원의 통일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3권 1호 (1987 봄), pp. 127~41; 김도태, 『재야통일안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참조.

IV. 통일과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통일은 한민족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한민족 전체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한민족은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사회의 화해·협력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궁극적인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자유·평등·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목표로서의 통일」은 한국민족주의의 틀내에서 모색될 수 밖에 없다.

해방이후 한국민족주의는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간의 拮抗關係 및 補完關係를 통해서 형성되고 변해왔다.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민족국가건설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주사회의 주역인 시민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반면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의 실현, 대외적 자율성확보, 통일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 한국민족주의는 이러한 두가지 유형의 민족주의를 창조적이고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종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

남북간 이념대립 및 경쟁의 벽을 해소할 수 있는 민족적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민족문화의 동질성, 민족성원으로서의 일체감, 역사의 공유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경우 서구의 근대민족국가에서의 「민족」개념보다 언어·혈연·문화를 바탕으로

로 한 게마인샤프트적인 「겨레」라는 개념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⁵⁵⁾

그러나 1945년 이후 남북한간 문화의 이질화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⁵⁶⁾ 문화가 이념 및 정치·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부구조로서 총체적 의사소통체계이며 삶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남북간 문화는 상당부분 통합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민족이라는 개념도 계급적 관점에서 정의함으로써 한국의 민족개념과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는 단순히 남북간 전통 문화의 공통분모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새로운 문화적 동질성을 넓혀 나가는 문화공동체 형성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북한 내부에서 文化變容現象(acculturation)이 일어나거나 남북간 문화통합정책에 의해서 南北間 文化的 相容性이 증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 가는 ‘복고적 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건설과정을 통하여 미래의 역사를 창조하는 ‘미래지향적 통일’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55) 신일철, “저항적 민족주의: 그 대내면,”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 pp. 69~71; 인용하는 서구에서 민족형성은 근대적 현상인 반면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터키, 이집트 등은 근대 이전에 「전근대민족」을 형성한 뒤 「근대민족」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용하, “민족형성의 이론,” 「한국사회학연구 7」, pp. 5~51.

56) 최상용은 1945년 이후 남북간에는 정치권력의 실체로서의 국가(staatsnation)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문화국가(kulturnation)와 민족의식을 토대로 한 국가(bewusstseinnation)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최상용, “평화,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사상」, 3권 1호 (1991 봄), pp. 24~30.

2. 갈등통합원리로서의 한국민족주의

한국민족주의는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의 여러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원리가 되어야 한다. 민족주의의 틀내에서 계층간·지역간·세대간 갈등이 용해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해서 한국사회의 내부역량을 신장시킨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아울러 통일후 남북간 지역갈등과 계층간·세대간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 이전에 남북간 공통기반을 넓히기 위한 점진적 통합방안이 실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후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3.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와 병행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4·19후와 1987년 6·29선언 이후에서와 같이 민주주의가 활성화 되면 민족주의도 활성화된 반면, 민주주의가 시들면 민족주의도 시들었다.⁵⁷⁾ 문민정부의 등장에 의해서 민주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족주의가 민주주의와 결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시민사회⁵⁸⁾의 자율성회복과

57) 차기백, “한국에서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한배호 외,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pp. 363~77.

국가·시민사회간의 균형을 목표로 해야 한다.⁵⁸⁾ 또한 전체로서의 민족이익과 개체로서의 개인 및 집단이익이 상호조정될 수 있는 협상의 틀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의회정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각종 갈등과 통일문제에 대한 異見들이 의회정치의 틀내로 수렴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와 권력의 재분배에 의해서 실질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제노동분업과 시장경제의 현실속에서 자본축적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개입과 시장자율성의 적절한 배합 및 국가와 노동, 자본간의 협상의 틀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의 이념은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통일이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때 민주주의이념과 다원주의 정치체제가 통일한국의 정치적 미래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4.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주의

한국민족주의는 세계경제체제와 세계국가체제안에서 한민족의 자립과 번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한국민족주의는 세계체제속에서

58) 시민사회는 “국가의 직접적 통제밖에서 개인들과 집단간에 사적 또는 자발적 협정에 의해서 조직되는 가정생활, 경제영역, 문화활동, 정치적 상호작용 등의 사회활동영역”을 의미한다. David Held, *Political Theory and the Moder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 6.

59) 한배호, “정치변동과 국가·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서울: 한울, 1992), pp. 75~82.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족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것은 통일과정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일후 한국민족주의가 배타적 성향이나 팽창적 성격을 띠지 않고 국제화해·협력을 지향하면서 민족적 자존과 자율성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한국민족주의의 담당세력

그동안 한국민족주의의 주도세력에 대해서 농민, 대중, 중산층 등 여러가지 견해가 있었다.⁶⁰⁾ 이러한 견해는 한국사회의 시대별 상황과 한국사회의 계층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현재 계층구조와 정치·사회세력의 정치성향 및 세력분포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한국민족주의의 담당세력은 시민계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은 ‘공인과 문화인’으로서의 성격과 ‘장사꾼’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¹⁾ 시민은 반드시

60) 이용희는 “농촌의 대중과 도시지식인의 전진적 민족주의의 결합”을 주장하였다. 이용희, “한국민족주의,”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 p. 93; 최상용과 손세일은 대중을 한국민족주의의 주도층으로 설정하였다. 최상용,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민족주의,” pp. 353~54, 손세일,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 pp. 114~35; 고영복은 한국민족주의의 주도세력은 半都市化된 층이고, 계층적으로 중간층이며, 제도적으로 지식인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영복,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와 담당세력,” 서울대학교사회학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범문사, 1983), pp. 320~23.

시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시장경제의 틀내에서 국가개입과 계급지배의 중화를 모색하며 시민문화의 헤게모니를 받아들이고 있는 개인과 집단, 계층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⁶²⁾

한국에서 산업화의 결과 계층분화현상이 일어났지만 각 계층은 삶의 양식과 정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계급지향적 성향(class-oriented inclination)을 보이기 보다는 지위지향적 성향(status-oriented inclination)을 보이고 있다.⁶³⁾ 특히 한국에서는 제3세계의

-
- 61) 이와 관련하여 양승태는 “시민적(civil)이라는 용어는 문화, 도덕적 가치나 보편적 사회질서를 실현하거나 실천을 지향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며, 부르주아는 물질적 가치 혹은 재산이라는 인간생활에 필수적이되 한정적인 가치의 소유자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양승태, “무존재적 역설: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언급,”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pp. 343~48.
- 62) 서구에서 민족주의의 주도세력은 경제적 계급에서 공적 시민으로 전환한 시민이었다. 부르주아계급은 봉건영주와 토지귀족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패권적 계급(conquering class)으로 등장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자본축적을 하는 동시에 의회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 63)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급(class)이 가장 중요하고 계급에 의해서 지위(status)와 권위(authority, 정치 권력을 의미함)가 결정되며, 계급요인에 의해서 사회가 양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베버(M. Weber)는 지위는 종교, 교육, 교양 등에 의해서 형성된 삶의 방식(life style)에서 연유하는 사회적 명예 또는 위신(social honor and prestige)을 의미하며 계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반드시 계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독자적 영역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위도 계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계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독자적 영역이 있으며 계급과, 지위, 정치적 권위의 분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Eric A. Nordlinger, “Political Sociology: Marx and Weber,” in Eric A. Nordlinger, ed., *Politics and Society* (New Jersey: Prentice-Hall, 1970), pp. 18~20.

기준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분배구조, 남북대결로 인한 계급문제의 표출억제, 한국인의 지위상승욕구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계급계층적 현상보다는 지위계층적 현상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⁶⁴⁾ 한국에서는 계급에 의해서 사회적 행동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에 의해서 집단 의식이 형성되고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투표결과에서 나타나는 연고주의와 지역주의 성향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민족주의의 담당세력은 계급적 차원에서 모색되기 보다는 '계급연합적이고 초계급적인 시민연합'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노동자와 사무직노동자, 구중간계급 등을 망라한 시민계층들이 계급혁명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자율성확보,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⁵⁾

시민들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개혁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이를 현실적 토대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들이 의회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수렴될 때 대내적 갈등통합과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는 보다 구체화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64) 박광주, "한국국가의 성격과 민주주의의 전망," 「현대사회」, 40 (1992 봄·여름), pp. 82~83.

65) 한완상, "한국에서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계급,"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pp. 9~25.

빈 면

主體思想과 民族主義의 關係

徐 載 鎭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I. 서 론

1. 연구목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이질화된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은 무엇인가? 이념과 제도의 통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자 중 하나의 지향점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공통의 이념은 무엇인가? 수천년 동안 통일된 국가였던 남북한이 외세에 의하여 분단되었고, 남북에 나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핏줄을 지닌 혈연공동체이며, 한국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남북한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는 민족주의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우리의 새정부가 민족주의적 통일방안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이 민족대단결론을 주장하는 등 새로운 상황속에서 민족주의가 통일문제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남북을 이념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고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정당한 통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탈

냉전시대의 새로운 민족적 요구로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북한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념이자 유일한 이념으로 주장되는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있다. 주체사상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이념적 목표로 삼는 등 모든 영역에서 지도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인 동시에 우리의 통일정책수립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사회주의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주체사상을 여러가지 내용으로 변용시키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등 여러가지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북한 조선로동당의 이론 기관지인 「근로자」에서 뿐만 아니라, 로동신문, 라디오 및 TV를 포함한 모든 대중매체에서 연일 선전하고 있다. 김정일이 1986년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은 최근에 단행본으로 된 이론서에서 체계화되어 발전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민족주의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1991년 8월 1일에 김일성이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담화에서 자신이 민족주의자임을 주장하였다. 민족주의를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조아계급의 전유물이라고 거부해오던 북한이 민족주의 개념을 부활시키는 배경은 무엇인가? 왜 1986년이라는 시점에서 민족주의 개념이 부활하고 있으며 김일성이 현시점에서 새삼 자신을 민족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남북한을 연결하는 이념적 고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 글의 목적은 주체사상과 최근의 여러가지 이론적 변용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것이 민족주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 민족주의 정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2. 분석들

북한의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체사상을 어떻게 분석하여야 민족주의와의 관계를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인가? 북한에서 주장하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란 어떠한 주권국가이든 기본적인 정책적 목표로 추구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사상적인 측면에서 크게 의미부여를 하기는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북한에서 그것을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는 주체사상이 스스로 주장하는 이론적 체계나 지향하는 목표로서가 아니라 주체사상이 북한의 대내외적 구조속에서 어떠한 사회정치적 기능을 하느냐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모든 영역을 지도하는 이념적 체계, 가치 체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롯한 일부 지도부에 의하여 발전되어 인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강요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이다. 인민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분명히 자신들의 일상생활속에서 체험한 가치 및 세계관과 상충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개별 인간들의 삶속에서 체험되어 형성된 사상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지배자의 이익과 존재형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주체사상을 지배이데올로기 이론으로 조명하고 지배이데올로기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맑스의 이데올로기 개념은 다음의 두가지 명제로 해석되어왔다. 즉 ①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하며, ② 모든 시대에 있어서 지배계급의 이념이 지배이념으로 된다.¹⁾ 전자의 명제는 모든 사회계급은 상이한 사회적 존재조건하에 있으므로 상이한 사회적 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피지배계급도 고유의 사회의식과 가치를 가지게 되어 지배계급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명제는 지배계급이 그들의 이념체계를 피지배계급에 강요하여 피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억압한다는 관점이다. 지배이데올로기는 원래 지배자의 무기로서 피지배계급의 이익에 관련되는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는 본질적으로 ‘허위 의식’이라고 보았다.²⁾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왜곡된 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에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 모순을 은폐하는 기능을 하며, 그 은폐는 지배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³⁾ 지배이데올로기는

1) Marx and Engels, *The German Ideolog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8), pp. 47, 64.

2) Nicholas Abercrombie and Bryan Turner,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in Anthony Giddens and David Held, eds., *Classes, Power and Confli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p. 398.

3) Jorge Larrain, *The Concept of Ideology*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특정 지배자나 특정 사회세력의 이익을 전체 사회 또는 전체 민족의 보편적 이익이라고 분식하고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지배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항상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 등의 보편성(universality)을 표방한다.⁴⁾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은 이데올로기가 보편성의 이름으로 표면적으로 주장되는 현상적 내용(appearance)과 특정 지배자의 실제이익에 관련된 본질적 내용(essence)을 구분해내는 작업을 요구한다.⁵⁾ 이렇게 할 때 한 사회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실체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배이데올로기의 양면성을 판별해 내기 위하여 국가(state)와 정권(regime)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가 표면으로 내세우는 현상적 내용은 항상 국가전체의 이익, 또는 민족전체의 이익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민족이익 지향적이다. 그러나 국가관리자로 정권의 가장 중요한 이익은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만 국가를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과 요구안에서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의 이익과 정권의 이익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과 정권의 이익간의 거리는 국가 관리자인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다.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일수록 자기이익을 위한 실현이 용이

1979), p. 48.

4) Kai Nielsen, "Marxism, ideology, and moral philosophy," *Social Theory and Practice*, vol. 6, no. 1 (1980), pp. 58~59; Koula Mellos, "Developments in advanced capitalist ideology,"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1, no. 4 (1978) 참조.

5) Ibid., p. 55.

하다.

밀리반드(Ralph Miliband)에 의하면 국가관리자는 두가지 상이한 목적을 위하여 작용하는데, 하나는 권력담당자(people in power)들의 자기이익(power interest)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이익 또는 민족이익(national interest)이라고 보았다. 밀리반드는 모든 정치인과 권력 담당자들이 오로지 자기이익을 위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지만, 그들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자기이익에 의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고 보았다.⁶⁾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와 동행할 때만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국민적 합의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이념체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의한 이념이 곧 보편적인 이념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항상 특정지배인이나 특정 사회세력의 이념체계가 보편적 이념으로 주장되고 강제적으로 전사회에 주입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만다.

주체사상이 한민족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측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하여 기능한다면 그것은 ‘민족’주의적 이념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김일성 개인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더 기능하고 민족 개개의 성원들의 물질적·정치적 이익을 희생시켰다면 그것은 김일성 개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김일성’주의 이데올로기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주체

6) Ralph Miliband, *Class Power and State Power* (New York: Verso, 1983), p. 69.

사상의 형성과 이론적 변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 및 변용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주체사상의 정권이테올로기로서의 속성과 민족주의적 속성을 판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II. 사회주의이론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북한의 주체사상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북한의 지배이념은 왜 민족주의라는 이름이 아닌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는가?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이론적 연원들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주체사상의 성격, 북한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 까닭은 첫째로 사회주의자들은 19세기 유럽에서부터 민족주의가 그 주요 담당자인 부르조아의 이익에 봉사하였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민족주의는 토착부르조아들에게 국내시장을 보장해주었고 그들의 해외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제국주의의 형태를 띤 민족주의는 식민지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왜곡시키며 식민지 프로레타리아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오로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만 몰두하고 민족주의를 계급투쟁의 방해물로 여겼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⁷⁾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은 마르크스의 이론적 예견과는 달리 제

7) Horace Davis,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p. 27.

국주의에 대한 민족해방운동의 차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민족주의간의 관계에 관한 인식에는 몇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1차세계대전을 통해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공허한 허구로 드러나자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견해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노동운동을 자연적으로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⁸⁾

반제국주의운동에서 민족주의의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람은 레닌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민족운동을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닌은 사회주의적 프로레타리아만이 제국주의의 진정한 적대자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소수민족의 민족운동에서 그는 프로레타리아가 그 계획을 완수하는 것을 돕는 하나의 효소 역할, 하나의 박테리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레닌은 민족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민족주의를 변호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에 의해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범위를 진보적인 민족운동에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진보적인 민족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민족문제에 대한 레닌의 본질적 원칙이었다. 마르크스주의적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민족문제에 관한 레닌의 가장 독창적인 공적은 민족과 계급을 변증법적으로 조화시키려는 그의 시도에 있었다. 그러나 레닌에게 있어서 민족자결권

8) Ibid., p. 31.

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전술적 문제였고, 따라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아니었다.⁹⁾

레닌의 이러한 온건적 인식과는 달리, 비타협적 국제주의자로서 로자 룩셈부르크와 스탈린을 들 수 있다. 스탈린은 철저한 계급적 관점에 기초하여 민족주의에 대하여 강한 부정적 태도를 취하였다. 데이비스(Horace Davis)는 스탈린보다 민족주의에 대하여 더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공산주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철저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주장하는 로자 룩셈부르크는 민족의 억압은 자본주의적 지배의 불가피한 산물이라고 보고 자본주의를 제거하지 않고는 민족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¹⁰⁾

북한은 사회주의의 이러한 인식들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북한은 민족주의란 자본주의제도에 그 사회계급적 근원을 두고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민족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계급적 근원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은 그 계급적 본성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사회주의 사회에는 민족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계급적 근원이 없다고 인식되는 것이다.¹¹⁾ 북한은 민족주의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그것이 협소한 부르조아들의 계급적 이익을 민족적 이익이라는 간판으로 가리우고 민족들간의 반목과 적의를 고취함으로써 결국은 근로자들의 계급적 이익을 희생시켜 근로자들의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파괴하는 반동적인 사

9)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서울: 까치, 1989), p. 234.

10) 위의 책, p. 234; Davis,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p. 103.

11)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27.

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1985년에 간행된 「철학사전」의 민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북한에서 민족주의가 거부되는 핵심적인 이유를 읽을 수 있다.

민족주의는 우선 대내적으로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을 떠난 ‘전민족적 리익’을 내세움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기의 진정한 계급적 리익과 민족적 리익을 자각할 수 없게 한다. 민족주의는 결국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근본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없게 한다.¹²⁾

김일성에게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 공격적 속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 것 같다. 그래서 민족주의 개념보다 외부적 공격, 침습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고 폐쇄하여 방어하는 속성을 가진 ‘주체사상’ 개념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일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주체사상은 절대로 민족주의로 불러져서는 안되는 사상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체사상을 반민족주의적 사상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이는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기능과 그 결과가 민족적 이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북한에서는 민족주의 대신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그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 계급의식, 자기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과 민족자주의식, 자기민적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결합시키고 있는 사상”이라고¹³⁾ 정의되는데 여기에는 계급주의적 세

12)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53.

13) 위의 책, p. 351.

계관이 짙게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고 주장한다.

Ⅲ. 스탈린 사후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북한의 대응으로서의 주체사상

1. 정권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형성

주체사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이 어떠한 객관적 조건속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체사상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 대내외적 조건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소련의 수정주의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격변에 대한 북한의 대응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몇달 후부터 스탈린의 우상숭배는 소련에서 이미 완화되기 시작했고 수정주의적 징후가 나타났으며 1954년말 이후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1956년 20차 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하는 연설을 통해 인류의 진보적 지도자, 세계의 영감, 소비에트 인민의 아버지, 과학과 학문의 거장, 군사적 천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등 최고의 찬사로 숭배되었던 스탈린이 사실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고문광이요, 대량 살륙자이며, 소련을 재앙으로 몰고간 군사적 무식쟁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고 스탈린의 편집광적인 망상, 고문, 숙청에 관한 온갖 죄상을 낱낱이 폭로하였던 것

이다.¹⁴⁾ 후르시초프의 이 연설을 통한 사회주의 이념의 도덕적 황폐화에 대한 고발은 사회주의권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의 영향은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즉각적으로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다.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일찍부터 反蘇 민족주의 감정이 발달해 있었는데 후르시초프의 이 연설은 화약에 불을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폴란드에서는 1956년 6월 포즈난 노동자들이 ‘빵과 자유’의 슬로건을 내걸고 시위를 하다가 폭동으로 발전하자 군대가 투입되어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53명, 부상자 300명, 체포자가 323명에 달하는 이른바 포즈난 사건이 발생했다.

헝가리의 1956년 사건은 훨씬 대규모 사건으로 발전되었고 결국은 소련군대가 투입되어 진압되었다. 당원, 지식인, 학생, 공장 노동자에 이르는 모든 사회집단과 계급들에게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전국적 혁명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전국적 혁명적 운동은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지도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였다.¹⁵⁾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내부 변화를 복한은 제국주의의 사주와 반혁명분자들에 의한 소행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에 미칠 영향을 매우 우려하였다.

14)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450~51.

15) 伊東孝之, “동구혁명과 비스탈린화,” 동구사연구회 편, 좋은책 편집부 역, 「격동의 동구현대사」 (서울: 좋은책, 1990), p. 197; Howard Davis and Richard Scase,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서울: 느티나무, 1990), p. 185.

제국주의 간섭자들과 헝가리 반혁명분자들에 의하여 도발된 헝가리에서의 반혁명적 폭동은 헝가리 노동혁명 정부의 요청에 의한 소련의 국제주의적 원조와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헝가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급속히 진압되었다.¹⁶⁾

헝가리 인민은 국내 반혁명세력을 타도하고 자기들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빛나게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라파의 중심에 새 전쟁의 온상을 조성하려던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¹⁷⁾

헝가리 사태는 노동자들의 반사회주의, 반소 민족주의운동이었기 때문에 소련군이 개입했고 또 소련군의 개입없이는 진압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국적인 대규모적인 격렬한 시민봉기였는데 북한에서는 그 진실이 왜곡되어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소련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1989년에 일어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바로 이때 1956년에 일어났을 것이다.

소련과 동구에서의 반소 민족주의 시민봉기는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사건이었다. 이때부터 북한은 외부의 ‘불건전한 바람’의 침습을 차단하기 위한 폐쇄정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외부와의 단절과 폐쇄의 전략은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최근에도 주된 대응책으로 채택된 전략임을 강조할 필

16) 김일성, “체코공화국 정부대표단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김일성수상의 연설(1957년 4월 1일),” 『로동신문』, 1957. 4. 2.

17)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1957년 4월 4일),”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8), p. 74.

요가 있다. 당시 김일성의 한 연설은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잘 보여준다.

만일 우리당과 당원들이 사상적 단련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온갖 반맑스주의적 사상적 관점 경향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고 또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¹⁸⁾

1958년에 도입된 강력한 주민감시체제의 도입은 이러한 맥락에서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58년에 도입된 식량배급제도는 당시의 농업집단화정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지만 주민통제의 정치적 의도가 더 크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농업집단화를 실시한 중국이나 소련에서는 북한에서와 같은 식량배급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데서도 알 수 있다.

나. 스탈린격하운동과 우상숭배비판에 대한 북한의 대응

후르시초프의 우상숭배비판은 이전의 소련에 대한 김일성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했다.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가 대두되기 이전까지 김일성은 소련과 스탈린에 철저히 밀착되어 있었다. ‘자주’ 또는 ‘주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정치적·경제적 종속의 전형적 사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존성때문에

18) 김일성,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40주년 경축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회에 참가한 우리당 및 정부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1957년 12월 5일),” 위의 책, p. 37.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배우자’라는 구호아래 북한의 소비에트화에 온 정력을 기울였으며, 스탈린에게 ‘최대의 경의와 감격’을 표하였다. 김일성은 1946년 8월 28일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서 「스탈린 대원수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족의 해방자이며 후원자이고 은인이며 벗인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 만세!...이러한 북조선인민의 해방과 발전이 오로지 당신의 두터운 고려와 붉은 군대의 원조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조선인민은 깊이 인식하고 당신에게 최대의 경의와 감격의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당신의 원조가 끝끝내 있을 것을 우리 조선인민은 확신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필연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소련과의 관계는 스탈린 사망후 등장한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와 스탈린 우상숭배비판, 북한의 김일성 우상숭배에 대한 소련의 비판으로 급냉각되었다. 김일성의 우상숭배경향에 대한 소련의 비판에 대하여 북한은 경제적·정치적 내정간섭이라고 매우 노골적으로 반격을 하고 나섰다.

원조를 준다는 자만심으로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완전히 무관하다. 자본주의나라간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대조건이 붙어 있는 ‘원조’, 내정간섭을 전제로 한 ‘원조’는 사회주의 나라간에는 있을 수 없으며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나라의 원

19) 김일성, “스탈린 대원수에게 드리는 편지(1946년 8월 28일),” 통일원, 「조선 노동당대회자료집 제1집」(서울: 통일원, 1980), pp. 18~19.

조는 그것을 받는 각각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강고히 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 발전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 나라의 당대회를²⁰⁾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새로운 단계’의 개시로 묘사하고, 어떤 당의 정책과 결정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공동강령’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다른 형제당에 내리먹이려 하고 있다. 어떤 당의 결정이나 조치는 그 당 내부에서만 의무적인 것이지 결코 다른 당의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 특히 소위 ‘개인숭배반대’운동을 다른 당에 내리먹이려 하고 그것을 간판으로 해서 형제당, 형제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들 나라의 당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확실히 ‘개인숭배반대’ 소동에 의해 수많은 형제당이 소용없는 ‘열병’을 앓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커다란 손실을 입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개인숭배반대’ 소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행동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²¹⁾

김일성에게는 개인숭배비판 운동과 수정주의가 북한에 침습되지 못하게 하여 정권을 수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급선무로 대두하였다. 외부사조 차단과 사상무장 강화가 모색되었다. 그것은 곧 차단과 단절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구체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모든 당 내에서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수정주의자의 활동을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정

20)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한 소련의 제20차 당대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21)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 10. 28 논설.

주의자에 압력을 가하고 그들을 고립시켜 수정주의가 대중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든지 수정주의에 끌어들여지지 않도록 하며 공산주의자와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결속시켜 전 당이 맑스-레닌주의적 입장에 확고히 서도록 하며, 공산주의적 대오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우리는 사상투쟁을 통하여 모든 당과 모든 공산주의자를 보다 단련시키고 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준비시킬 수 있다.²²⁾

다. 김일성의 리더쉽에 대한 도전과 그에 대한 김일성의 대응

주체사상이 형성된 국내적 배경의 하나는 김일성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명분을 찾는 것이었다.²³⁾ 김일성에 대한 비판은 특히 한국전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심화되었다. 또한 소련의 개인숭배비판의 사조에 편승하여 북한에서도 반김일성세력들이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일성은 전쟁중에 허가이, 박헌영 및 이승엽 등 남로당일파를, 1956년에 연안파를, 1957~59년 사이에 소련파를, 그리고 1967년에 갑산파를 각각 숙청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반종파투쟁을 추진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당화 방법이 강구되었다. 김일성은 자신의 반대세력인 이질집단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확립을 강조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적 제거행위를 합리화시키려 했다. 그는 ‘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1955년 12월 28일의 연설에서 많은 그의 정적들을 다음과 같이 비

22) 위의 글.

23) 서대숙, 서주석 역,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 95.

판하고 주체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였다. 당시는 주체라는 말이 이론적이나 논리적 해석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일성 자신이 하나의 구호형식으로 제기하면서 자신의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데 하나의 이념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번에 박창욱 등이 범한 과오도 그들이 조선문학운동의 역사를 부인한데 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카프’ 즉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동맹’에 참가한 우수한 작가들의 투쟁도 없다.…박창욱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을 연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조아 반동작가인 이태준과 사상적으로 결탁하게 되었습니다.…박영빈동무는 소련에 갔다와서 하는 말이 소련에서는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방향이니 우리도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구호를 집어치워야 하겠다고 했습니다.…허가이와 박일우의 시비는 당내에서 규율을 약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았읍니다.…박창욱과 기석복에 대한 비판도 너무 늦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당시에 비판하였더라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박헌영도당과의 투쟁과 반간첩투쟁의 경험을 당원들 속에서 철저히 침투시켜 그들로 하여금 간첩을 정확하게 잘라낼 줄 알게 하여야 합니다.²⁴⁾

1956년의 소위 반종파사건을 통하여 김일성을 공격하던 윤공흠, 서희, 이용규, 김강 등이 중국으로 망명하고 최창익과 박창욱이 출당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이 이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 북한 내정에 개입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최창익과 박창욱을 중앙위원으로 복구시키고 다른 4인에 대한 출당처분도 취소하였다. 이

24)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69.

를 계기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자주’를 결심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²⁵⁾ 김일성은 자신의 정적들이 교조주의, 형식주의, 종파주의, 관료주의 등에 젖어있어 혁명과업을 곤란하게 했다고 말하고 주체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 중국의 문화혁명의 영향에 대한 김일성의 대응

1966년경부터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은 김일성에게 소련의 우상숭배비판 못지 않는 충격을 주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북한에 준 영향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이 홍위병의 대자보를 통하여 북한과 김일성을 공격하였다는 점이다. 1964년 후르시초프가 실각하자 북한은 새 지도자인 브레즈네프와 코시킨을 상대로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가 중국에게는 불쾌했을 지도 모른다. 중국 홍위병은 1967년 1월부터 김일성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원로장군들의 이름이 서명된 한 대자보는 김일성을 “수정주의자이자 후르시초프의 추종자”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중국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혁명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²⁶⁾

둘째, 동구사회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대중에 의한 불만의 폭발이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어떤 면에서는 모택동이 도전한 권력투쟁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관료주의에 대항하는 대중의 불만이 폭발한 면도 있

25) 한홍구, “알기쉬운 북한 현대사,” 김남식 외,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서울: 현장문학사, 1989), p. 110.

26)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 165.

다.²⁷⁾

김일성에게서는 이러한 경향이 북한에 침습되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나 소련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변화도 김일성에게는 충격이었다.

마. 항일혁명투쟁의 복원

소련과 중국 및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변화로부터 초연하여 단절하는 전략은 쉽게 항일혁명투쟁의 외세저항 및 주체의 논리와 결합되었다. 김일성은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어나가는데서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문제는 우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항일혁명투쟁과 주체를 연결시켰다. 주체사상은 민족독립운동에서 그 역사적 뿌리를 찾는 학문적 작업에 의하여 역사적 정통성이 분식되어졌다. 북한은 자기 체제의 지배이데로기인 주체사상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일투쟁의 전통을 1955년부터²⁸⁾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였다. 북한 사회과학을 총동원하여 항일혁명운동의 역사 연구가 추진되어 1955년에서 1967년 사이에 「력사과학」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1920~1930년대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에 관한 대대적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1979~1983년 사이에 22권으로 된 조선전사, 1983년에 현대조선력사, 1987년에 조선통사가 발간되었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이 사실

27) 모리 카즈코, 「중국과 소련」 (서울: 사민서각, 1989), p. 88.

28) 김일성은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근로자」 (1955. 4)라는 글을 통해 1930년대의 항일빨치산 운동을 자기의 것으로 유일 정통화하는 역사의 왜곡을 시작하였다.

이 표현되어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노동운동사, 민족해방 투쟁사들에 대한 연구가 무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리 또는 편찬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진행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경험을 연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조선혁명을 옳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²⁹⁾

2. 주체 및 자주 노선의 본질

김일성이 주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문건인 1955년 12월 28일의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주체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의 귀절에서 잘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할 당시 주체의 의미는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주노선을 취하겠다는 의도이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단절과 폐쇄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인 독자성으로 요약되는 주체사상의 맹아가 보인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째로 삼켜서는 안된다. 교조주의에 빠지면 결국 그 당은 현실과 인민대중으로부터 유리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맡은 바 민족적, 국제적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각국의 당이 주체성과 독자성을 견지하는 문제는 그 나라 혁명의 발전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

29) 통일원, 「제4차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서울: 통일원, 1988).

이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각국의 당이 창조한 경험에 대해서는 각각의 당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³⁰⁾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연설에서³¹⁾ 사상정치분야에서의 주체, 경제분야에서의 자력갱생원칙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노선, 군중노선에 관한 김일성 자신의 주체사상에 관한 최초의 정식화가 제시되었다. 김일성은 1966년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담화를 통해 주체사상의 핵심적 내용인 자주노선에 관한 체계화를 제시했다.

제반 사실은 우리에게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당은 지난 시기와 같이 앞으로도 대내외 활동에서 독자성을 견지할 것이며 자주노선을 관철하여 나갈 것이다.³²⁾

그러나 이 글에서도 아직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다가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발표한 공화국정부 정강과 1970년의 제5차당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라고 규정되었다. 그에 따라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가 기본노선으로 확고히 표명되었다.

30)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 10. 28 논설.

31)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1965년 4월 14일),” 「김일성 저작집 1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78~329.

32)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6. 8. 12 논설.

공화국정부는 우리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걸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 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것입니다.³³⁾

소련, 중국 및 동구사회주의의 개혁의 영향을 차단하여 정권을 수호할 목적으로 형성된 주체사상은 정권위기를 극복하면서 점차 사회통합, 김일성 우상숭배, 노력동원을 위한 통치이념으로 발전되었으며 나아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로 전개되었다. 김일성은 단절의 원리로서의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서의 주체의 논리로 발전시켜 통치의 원리로 활용하였다. 혁명적 군중노선이 그것이다. “군중로선은 근로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군중로선과 혁명의 원칙이 때로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으로 동원되고 천리마운동이나 3대혁명소조운동과 같은 경제적 노력동원에 동원되는 만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철저하게 통치의 이념으로 발전되었다. 주체사상의 원칙은 경제구조에서도 뒷받침되었다.³⁴⁾ 주체사상

33)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967년 12월 16일),” 「김일성 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88.

34) 자력갱생의 원칙도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체사상의 형성배경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조건에 대한 피동적 적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은 또 김일성에게 충직하고 노동을 사랑하는 신민형 인성으로 개조하는 인간개조사업의 이론적 틀로서 발전되었다.³⁵⁾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민족의 보편적 이익에 충실한 이념체계라기 보다는 정권이데올로기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IV.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 우리식 사회주의

단절과 차단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특성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등장한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을 통해서 확연히 부각되었다. 1978년에 중국의 덩소평이 개혁과 개방으로 정책전환을 한 것과 소련에서 1985년부터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사회주의 체제 개혁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1950년대 중반과 같은 또 하나의 정권위기적 상황이었다.

다음의 김정일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대응책으로 외부사조의 차단과 사상교양강화를 강조한 것은 주체사상이 처음 형

이상승배비판에 대한 김일성의 거부로 소련은 지금까지의 기부형태의 경제 원조를 대폭 삭감하여 장기차관으로 바꾸어버렸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김일성은 제1차5개년계획(1957~1961)에 대한 원조 요청차 50일간(1956.6.1~7.19) 소련과 동구 제국을 순방하였다. 그러나 원조획득이 좌절되어 결국 5개년 계획은 자체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외부로부터의 원조조달에 실패한 북한으로서는 노력동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35)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재진·김태일, 「北韓住民의 人性研究」(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참조.

성되던 시기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공연한 침략에 앞서 사상적 침투를 강행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입니다. 사회주의 나라에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을 불어 넣어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당은 사상혁명을 기본적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 원리교양과 당정책 교양, 혁명전통 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 애국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우리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³⁶⁾

이러한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은 소위 ‘우리식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중국 및 소련의 개혁의 바람이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중국, 동구, 소련에서 개혁을 해도 그것은 북한과는 무관하며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 사조에 대한 배척을 핵심적인 원리

36)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 5. 27.

의 하나로 하는 주체사상이 이 점에서 매우 설득력있게 사용되고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당의 노선과 방침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이다. 우리식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이란 다름아닌 우리 당의 노선과 방침대로 사고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과 어긋나는 그 어떤 사상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므로써 온 사회에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³⁷⁾

‘우리식 사회주의’는 50년대와 같은 사회주의권 전체의 위기의 상황속에서 외부와 단절함으로써 정권유지를 하려는 주체사상의 본질이 분명히 보여진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말이 만들어진 것은 그것이 주체사상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독자노선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는 새로운 단어로 선택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 조선민족제일주의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이론적 대응으로서 ‘우리 사회주의’와 동시에 나타났던 또 하나의 이론적 변용

37)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며 일해가자,” 「조선중앙방송」, 1991년 9월 2일.

이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다. 1985년까지만³⁸⁾ 해도 북한은 민족주의를 “전인민적 이익을 내세우면서 자기민족내의 부르조아지의 리해관계를 합리화하는 사상 결국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료동계급이 자기의 근본이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없게 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합리화하는데 복무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주의를 거부해왔었다. 그러나 1985년을 기하여 북한이 갑자기 민족주의의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이름의 민족주의를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985년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기 시작한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주체사상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기능은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사회주의로 개혁을 추진하다가 체제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북한의 사회주의가 여타 사회주의와는 본래부터 다르며 지금도 북한 고유의 사회주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러한 변화의 바람이 북한내부에 침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정교화하여 북한이 소련, 동구, 중국과는 핏줄과 언어가 다른 민족임을 주장하여 그들의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론적 노력이다. 1985년 무렵 민족의 징표와 민족주의를 해설하는 논문이 대거 출판되었고 1989년에는 206페이지에 달하는 「우리민족제일주의

38) 민족주의를 계급론적 관점에서 해설한 「철학사전」이 간행된 해임.

론』이라는 단행본이 출판되기에 이르렀다.³⁹⁾ 이러한 논문들에서 민족주의에 관한 개념이 이전의 개념과 매우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민족을 구성하는 요인, 즉 ‘민족의 징표’에 관하여 북한은 김정일의 다음과 같은 정의를 모든 논문에서 교과서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민족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됩니다.”⁴⁰⁾ 이러한 내용은 그 이전의 계급론에 기초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개념정의와는 매우 다르다.

민족의 징표에 관한 문제는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공고한 사회적 집단으로 결합되게 하는 공통된 기초에 관한 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민족의 징표에 관한 개념을 전면적으로 해부하시고 주체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으로 결합하는 공통성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이라는 것을 천명하심으로써 민족에 관한 주체적인 학설의 기본 내용을 더욱 뚜렷이 밝혀주시었다.⁴¹⁾

이처럼 민족주의의 개념에 계급론적 해석이 삭제되고 갑자기 민족의 개념을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으로 정의하는 배경은 무엇인

39)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 10);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 2); 최길산, “우리당이 밝힌 민족문제에 관한 리론,” 『남조선문제』 (1986. 2);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40)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 10), p. 14.

41)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p. 6.

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속한 개혁과 개방에서 북한이 느낀 위기의식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폐기하고 민족주의, 그것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으로서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민족은 중국,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민족과는 핏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독자노선과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더욱 더 공고화하고자 하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이 1986년에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을 때의 문맥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곧 중국과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이행되더라도 북한은 그들과는 다르게 현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내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민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과 인민들에게 충실할 수 없으며 자기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발전된 나라에 대하여서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환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나라의 구체적 현실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큰 나라나 발전된 나라라고 하여 언제나 옳은 길을 걷는 것도 아니며 또 그러한 나라의 경험이라고 하여 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큰 나라의 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주성을 비워버리고 큰 나라들이 하는 것을⁴²⁾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 우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⁴³⁾

중국이 시장사회주의체제로 이행하고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더라도 북한은 ‘자주성’을 견지하여 우리식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195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가 대변혁을 경험할 때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단절과 차단을 통해 김일성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 주체사상을 만들었듯이,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론 역시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속에서 외부의 변화가 국내에 침투하여 주민을 동요시키는 것을 막음으로써 김일성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권이데올로기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정권수호를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폐기하고 민족주의를 들고 나올만큼 위기상황을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의 민족에 관한 개념을 해설하는 리규린의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단으로 시작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 및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되어나간다.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한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⁴⁴⁾

42) 중국의 개혁·개방노선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43)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근로자」(1987. 7), p. 11.

44)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p. 6.

이 짧은 문단은 세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 이제 자주성의 단위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떠나 민족국가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붕괴해버린 사회주의에서 연대를 느끼고 도움을 구할 수가 없게 된 마당에서 인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개념을 부활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란 이제 더 이상 일반 유형의 사회주의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2년에 개정된 신헌법이 구헌법의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여 버리고 대신에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대체한 것은 이것과 관련하여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민족주의를 들고나오는 목적은 자주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주성이란 소련과 중국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자는 뜻이다.

셋째, 북한이 사용하는 민족의 개념은 결코 남한민족을 포함하고 남한민족을 북한의 ‘민족문제’의 대상으로 의도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민족을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정의한 것은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 소련,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민족과는 북한의 민족이 핏줄, 언어, 지역의 면에서 하나도 공통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의 개혁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⁴⁵⁾

45) 김일성은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 조국통일 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한 담화,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에서 남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이 경우는 부수적인 중요성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민족제일주의론도 주체사상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김일성 이상화의 논리로 연결되었다. 앞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 핏줄과 언어 및 지역의 측면에서 조선민족이 타민족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론임을 지적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다른 민족과 다르며 ‘제일’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의 풍요로운 물질생활이나 사회보장, 민주주의가 아니라 김일성과 주체사상,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이다. 따라서 조선민족제일주의도 결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상화에로 귀결된다.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원천력에서 근본핵을 이루는 것은 가장 위대한 수령과 지도자를 모신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 것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위업에 봉사시켜 나가시는 인민대중의 가장 위대한 수령, 참다운 인민의 수령이시다. ...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지닌 존엄 있고 행복하고 긍지높은 민족이다.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새롭게 발전 풍부화시키시고 빛내여 나가시며 인민대중을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리상사회로 이끌어 나가시는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 인민의 스승이시다.⁴⁶⁾

또 주체사상과 마찬가지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현재의 북한의 상황을 일제시대와 비교시킴으로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은폐

46) 교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p. 138.

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비현실적인 인식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대변영의 시기에 살고 있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나라가 오늘은 세계의 한복판에서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인류의 이상인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앞장서 개척해 나가는 '사회주의의 모범'의 나라로 되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 '영웅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민족의 영예와 자랑을 온 세상에 더 깊이 떨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⁴⁷⁾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으로서 단절과 폐쇄를 위한 주체사상의 본질에 대한 최고의 이론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VI.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인식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밝혀진 것은 5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의 과정에서 형성된 당시의 주체사상의 내용이나 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권 대변혁의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우리식 사회주의'나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의 내용은 모두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들은 모두 사회주의권의 변화의 바람이 북한에 들

47) 김일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기본핵," 「철학연구」(1991. 2), p. 2.

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그러한 단절전략을 정당화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북한이 스스로 주체사상의 역사적 뿌리를 항일민족운동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주체사상의 반외세적 이념을 더 심화시켜 외세와의 단절을 더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붕괴해버린 사회주의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연대를 느끼거나 도움을 구할 수가 없게 된 시점에서 북한은 단절을 하되 새로운 논리로 단절을 정당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새로운 논리가 민족주의에 근접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도록 인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을 그 핵심적 징표로 하는 민족의 개념을 사용하여 북한이 소련, 중국, 동구사회주의 국가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민족의 개념을 부활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을 제기한 것은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전환이 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 1986년에 처음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제기했던 의도가 북한의 민족이 중국, 소련, 동구의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개념이지 남한민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앞에서 강조되었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부정적인 개념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체사상을 민족주의라는 개념과는 연관시키지 않았던 이 전보다는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상당히 상당히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김일성은⁴⁶⁾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한 담화, 「우리 민

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⁴⁹⁾를 발표하여 민족주의의 개념을 남한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나름대로의 대남공세적 차원에서 의도된 것이지만 민족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나 계급적 관점의 다른 이념보다는 남북한이 결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더 크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김일성은 이전의 프로레타리아 계급론적 세계관이나 대남관을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관점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민족주의의 세계관을 물리적으로 포개어 놓은 것이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새조국건설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북과 남, 해외에 있는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 하여야 합니다.⁵⁰⁾

김일성의 이 연설을 해설한 「근로자」의 한 글은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은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근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의 분렬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도상의 차이나 사상과 리념의 차이보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의 공통성이 더 크며 개별적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보다는 민족공동

48) 1990년 5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남북화해를 주장하였음.

49) 「근로자」(1991. 9) 참조.

50)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근로자」(1991. 9), p. 8.

의 요구가 비할 바 없이 더 중요하다”⁵¹⁾고 주장하였다.

앞으로도 북한은 대남관계에서 민족주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새정부가 과거에 비해 높은 권력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반파쇼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한 대남전략이 퇴조할 것에 대비하여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반외세 자주’의 명분에 기초한 대남전략을 추진할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남북한을 연결할 수 있는 이념의 매개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민족주의의 넓은 개념에 포용하여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통일을 촉진시킬 새로운 민족주의의 개념정립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Ⅶ. 결론: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

이 연구에서 밝혀진대로 북한의 주체사상의 본질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란 민족전체의 보편적 이익에 기여하는 사상이어야지 특정한 한 정권에 기능하는 사상이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다. 북한이 철저한 단절과 폐쇄를 고수하는 것은 김일성의 우상화정권을 지속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가? 폐쇄와 단절이 자력갱생이라는 경제발전모델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가? 후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증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의 가장 큰 기능을 폐쇄와 단절을 정당화하고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김일성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51)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겨 실현하자,” 「근로자」(1991. 10), p. 13.

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체사상은 권력이데올로기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를 외세에 대한 저항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주체사상은 극단적인 차원에서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단절과 저항의 전략은 남한에 대해서도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체사상이 비민족적이다.

이렇게 단절적인 이념을 넘어 남한과 북한의 상이한 이념과 제도를 연결할 수 있는 보편적 이념적 에너지로서 민족주의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민족주의의 정립에 관한 본격적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는다. 여기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의 본질에 대한 분석의 결과가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몇가지 가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뛰어넘는 상위개념의 이념체제로 승격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계급만을 주체로 파악하는 민족주의는 다른 계급을 배제하고 희생시킨다. 부르조아만을 주체로 하는 민족주의도 다른 계급을 희생시킨다. 한국민족주의는 한반도내에 존재하는 모든 계급을 포용하고, 모든 이념을 포용하는 최상위개념이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하에서는 남한과 북한은 서로 체제를 전면 개방하여 이념과 체제가 자유롭게 경쟁하게 될 것이다. 자유경쟁을 통하여 취약한 이념과 체제는 자연도태되게 될 것이다.

둘째,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의 통일문제가 한반도화하는 것이 중심적인 가정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통일문제가 경제 등의 다른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독일의 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서독이 통일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였을 때 주변국가들은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반대를 표현하거나 할 수 있는 역량(power leverage)이 없었다. 우리의 경우도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통일이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무력시위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우리의 통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과잉 반응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에 대한 민족주의적 시각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대비하여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북한이 단절과 차단, 폐쇄로 특징지어지는 주체사상을 폐기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추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견고한 분단상태에서 이질화된 남북한 민족을 다시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재생시키는 길이다. 북한이 최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완화하고 외부와의 단절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나마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는 크게 다행한 일이다.

또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개방된 국제사회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이 남북간에 전쟁의 재발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전체를 자멸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는 세계적 탈냉전의 추세를 한반도에도 실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민족주의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을 심화시켜 남북한의 민족이 공존공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아직 정치적 통일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도 민족복리를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것이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이다. 오늘날의 세계사회는 군사경쟁 시대에서 경제경쟁의 시대로 이행되었다. 남한과 북한이 적대적 관계에서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이행할 때 상호간에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함으로써 가장 값싼 비용으로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이로운 민족전체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자주란 곧 단절과 폐쇄라는 논리로 빠져버린 북한 주체사상의 논리를 수정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민족자주는 경제적 경쟁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현실을 북한에 인식시키는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남한과 북한에 선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민족주의의 발전과 관련하여 가지는 두가지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국민적 합의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형성된 보편적 이념체계가 곧 민족주의적 이념이 된다는 사실이다. 특정한 개인이나 사회세력에 의하여 주도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이념체계는 보편성으로 분장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특정이익을 위하여 기능하는 정권이테올로기일 가능성이 높다.

민족주의에 관련된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의미는 국제사회에서 민족적 위신과 관련된 것이다. 남한에서는 점차로 민주주의의 제도와 내용이 정착되고 있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이 정치적으로 성숙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반쪽에서 전체주의와 우상숭배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남한민족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의 한국인이 ‘야만적인 행위’로 비난을 받으면 우리 민족 전체의 오점이 되듯이 북한체제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오점이 될 것이다. 북한의 민족도 같은 피를 나눈 우리민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⁵²⁾

한국이 세계사회에서 선진민족으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북한의 민주주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만의 선진화로는 반쪽의 선진화가 아니라 한쪽발이 망가진 절름발이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민족주의의 한 과제는 전체의 한민족에게 정치적 선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의 실천이 한국민족주의라는 개념에 내용물을 채워서 역사적 현실로서의 한국민족주의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2)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우리가 북한에까지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와 병렬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부 미국과 남부 미국간의 판매시장, 노동력조달 등의 경제적 이익갈등이 남북전쟁의 원인이라고 보는 경제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배링턴 무어(Barrington Moore, Jr.)는 매우 설득력있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무어에 의하면 북부가 전쟁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구조적인 요인은 청교도정신과 프랑스 혁명의 전통을 계승받은 북부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의 원리를 거부하는 노예제도를 같은 땅 남부에 존속시키고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미국에서 완성시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노예제라는 진근대적인 제도를 타파했을 때 비로소 미국은 세계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도덕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노예제도를 폐지한 다음에야 미국정부는 균등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북부의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성하기 위하여 남부의 비민주주의적 노예제를 철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Barrington Moore,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1966), pp. 152~53.

討 論

- 司 會：朴 奉 植(서울大 教授)
- 討 論：金 榮 作(國民大 教授)
林 玄 鎮(서울大 教授)
陳 德 奎(梨花女大 教授)

빈 면

討 論

박봉식 : 감사합니다. 토론중이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은 종이에 적어주시면 토론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가나다 순서에 의해 김영작 교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학적 의미에서 민족주의는 엄격히 실천의 문제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학적, 인류학적 측면에서의 논의도 가능하겠지만 實踐의 問題나 實踐意識을 포기한 민족주의의 토론이라는 것은 桌上空論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작 : 국민대학의 김영작입니다. 먼저 현재의 시기적 상황으로 볼 때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해주신 민족통일연구원의 문제의식과 시기적절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뜻깊은 행사를 추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 박사는 한국의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문제에 대해 대체로 앞부분에서는 주로 서구적인 관점에서 민족주의 개념과 일반유형에 관한 기존의 학술을 정리하셨고, 한국민족주의의 특성이라고 하는 뒷부분에서는 주로 남쪽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논문을 써주셨습니다. 서재진 박사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해 발표해 주셨는데 저로서는 두 논문 모두가, 특히 주체사상과 민족주의에 관한 논문은 주체사상에 관한 기존의 접근 방법과는 다른 독특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주셔서 매우 결실이 많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두 논문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박사는 먼저 한국민족주의 전체에 관한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한국민족주의의 특성을 다시 위로부터의 민족주의, 밑으로부터의 민족주의라는 틀 속에서 각각의 문제점과 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문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민족주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식의 구성을 사용할 경우에 한국민족주의가 왜 허구화되었고 공동화되었는가에 관한 원인을 규명하는 초점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선 박종철 박사는 한국민족주의가 생명력을 잃게된 원인을 4가지로 분석하고 그 첫째 원인으로 한국민족주의는 19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목표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좌절된 민족주의였으며 남북분단과 같은 좌절된 민족주의 현실이 한국민족주의를 내면적으로 침잠케하는 일차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민족주의가 좌절의 역사때문에 침잠됐다는 것이 조금 부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국민족주의를 목표와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19세기부터 1910년까지를 제1기, 식민지 시기를 제2기, 해방이후 시기를 제3기로 분류해보면 이제까지의 3기를 통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여건과 능력의 부족으로 한국민족주의의 목표가 실패하였고, 또 민족주의의 목표가 실패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침잠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한국민족주의의 목표가 성공하지 못했던 현실은 한국의 민족주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식민지 이후에

비록 주권은 상실했지만 민족의식은 더욱 고양될 수 있었고, 남북분단이후에도 분단으로 민족주의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좌절되었지만 오히려 민족주의적인 욕구는 더 강하게 표출되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족주의가 현실적으로 침잠하게 된 이유는 목표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권력층과 주변 강대국의 권력이데올로기가 한국의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로 되어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금기시하는 양상때문이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민족주의는 시련을 겪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한국민족주의의 상황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인식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의문으로 박박사께서는 한국민족주의의 또다른 특성으로 한국에서의 국가라는 것은 식민지시대에 과대성장된 국가를 기반으로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위로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민족주의 이념이 국가건설과정에서 중요한 象徴的 資源이 되었던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가건설과정에서 민족주의 이념이 표출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민족주의가 놓여있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 민족주의 이념이 표출될 필요성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표출될 필요성은 더욱 더 강렬했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투영되지 못하고 좌절된 것은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국제적인 상황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한국민족주의의 위상정립에 있어서 올바른 인식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민족주의의 전체적인 특성에 관한 시각을 보완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중요한 문제는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

민족주의가 南北間의 文化的인 相容性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단지 남북간의 문화적인 상용성이라는 것만을 가지고는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언급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한지가 서구의 근대민족국가보다 훨씬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주의 발생이 오히려 서구보다 늦었던 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동질성을 갖는 문화적인 국가나 민족(Nation)이라는 요소에만 연연하여 그것을 외부에 대한 하나의 독립된 공동체나 내부적으로 통합된 국가구성의 원리를 가진 근대적인 민족국가로 만들겠다는 자각된 정치적 의식의 발상이 뒤늦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핏줄과 언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각된 정치적 의식이 결여되어 위와 같은 제한성을 여전히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볼 때 한국민족주의는 남북간 문화적인 상용성과 아울러 남북간의 자각된 통일지향의식이 강렬히 표출될 경우에 비로소 통일이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적인 상용성에 자각된 통일의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체제통합의 문제와 함께 통일후의 궁극적인 체제관에 관한 논의도 포괄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단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적인 상용성의 시각만을 강조해서는 문화국가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민족주의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질문은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지적하신 부분으로서 박종철 박사는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와 병행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정리하셨습니다. 이점에도 약간의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 운동과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관한 관계는 요즘의 상황으로 보면 양자가 병행한다는 결론을 지

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방이후의 정국으로 소급해 올라가보면 오히려 한국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체제문제와 통일이념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적인 양상으로 작용하였고, 무엇보다 정치슬로건과 정치적 기능면에서의 양자의 갈등적인 모습은 한국민족주의의 병리현상이자 고뇌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서재진 박사의 논문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서박사께서 주체사상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신 접근방법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종래의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가 주체사상에 관한 문헌분석을 통해 말뜻의 풀이에 자의해석을 하거나 그것에 사상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식의 접근을 함으로 인해 주체사상이 갖고 있는 허구성을 폭로시키거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들어내는데 상당히 제약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박사께서는 주체사상이 표출된 상황적 배경과 정치적 동기를 주체사상이 형성되어 나온 시기와 연결하여 추적하고 이를 통해 주체사상에 담긴 말뜻의 본질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취하셨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외피와 본질에 있어서의 겉을 이해하는데 좋은 논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주체사상의 변형형태로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 민족제일주의가 결국은 폐쇄와 단절을 바탕으로 폐쇄주의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의 또다른 변형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서박사께서는 주체사상이 갖고 있는 정치적 동기와 특성으로서 대외적인 폐쇄주의의 분석에 굉장한 역점을 두셨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대내적인 김일성 독재체제의 정당화라는 부분은 양적, 질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측면

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1960년대 당시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론가들에 의해 살이 붙여져 하나의 체계화된 이론의 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라는 말보다는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라는 표현으로 동원된 내부용의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박사께서는 여러차례 김일성 우상숭배에 관한 지적을 하시고 있지만 특히 국내총파투쟁과 관련하여 주체사상이 김일성 독재체제 확립에 동원되었던 측면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대내적으로는 김일성 유일사상이라고 표출되는 측면을 아울러 덧붙였더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체사상의 정치적 동기와 특성에 관한 대외적인 폐쇄문제와 함께 대내적인 김일성 독재이데올로기의 정당화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주체사상의 성격을 북한의 정권이데올로기이며 권력이데올로기로서만 규정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까지도 권력이데올로기이고 체제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어떠한 이데올로기든지 그 기능에는 권력이데올로기의 측면과 정권이데올로기의 측면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헌정사에서도 체제이데올로기로서의 정당성과 권력이데올로기로서의 정당성 사이에 갭이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정권이데올로기이고 권력이데올로기이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에 특수한 형태의 권력이데올로기였다라는 점, 다시말해 개인숭배, 우상숭배체제와 연결된 특수한 형태의 권력이데올로기였다라는 점을 강조해야만 되지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박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에게 있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계

급적인 해석을 탈피한 민족개념으로서, 또한 통일이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극복되어야 할 것이 권력이나 정권이데올로기 측면 보다는 독특한 김일성 숭배사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북한의 권력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진 : 두 분의 발표를 매우 잘 들었습니다. 특히 민족주의에 관해 문외한인 저로서는 얻은 바가 많았습니다. 몇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실패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가 개항시기를 전후해서 근대국가로 진입하지 못했고 또한 해방공간속에서 민족국가로 지향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웅변해주고 있듯이 한국민족주의는 좌절되어 실패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남북한이 다시 대화를 제기해야할 시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시의성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통일을 위해서 민족주의가 남북한에게 어느 정도의 유관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는 당위론의 수준에서 머물 수 있고 진부한 이야기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논문은 나름대로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간의 문화적 상용성,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뛰어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구체적인 윤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논문은 서로 상호보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논의가 통합되어 전개되었다면 토론을 좀 더 밀도있게 진행시키는데 도움

이 되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논문에서 고려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가 결국 남북이 함께 가야하는 하나의 이념적 바탕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의미한다면, 또한 남북이 오랜 단일민족의 전통과 통일국가의 경험을 가졌다는 전제에서 민족주의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민족형성이라든지 국가경험에 나타나는 특수성과 같은 것이 부각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두 박사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분이 언급하고 있는 통일이념으로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인지 아니면 통일이후의 민족주의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만일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한 의미라면 그 내용이 다를 것인데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흔히 우리를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소위 베트남식의 무력통일, 예멘식의 합의통일, 독일식의 흡수통일에 있어서 민족주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능한 바가 있다면 무엇인지에 관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과연 민족주의라는 개념으로 남북이 하나의 통일국가로 지향해 나가는데 있어서 좌우파적 이데올로기의 전망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지 특히 서재진 박사께서는 한국민족주의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뛰어넘는 상위이념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념체계와 북한의 사상이나 제도에서 서로 다른 바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 방법론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뛰어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생각할 때 두 분은 그 내용

을 대부분 민주주의라는 각도에서만 조명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경제적인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말씀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북쪽에서는 나름대로 좀 더 인간적인 사회주의를 모색해야 되고 남쪽에서는 보다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시장사회주의의 가능성이라든지 남한에서의 사회민주주의 내지 민주사회주의의 가능성과 같은 경제체제에 대한 측면을 거론하지 않고 단순히 민족주의를 상위이념체제로서 언급하는 것은 공허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박종철 박사는 한국민족주의의 담당세력으로서 계급연합적이고 초계급적인 시민연합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물론 계급연합적이고 초계급적인 시민연합이라는 것은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를 중재하는 시민민족주의라는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계급보다 민족을 우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르조아 민족주의 단계를 조금 뛰어넘는 시민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조금 불분명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논문에 대한 몇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박사의 논문은 민족주의라는 것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 무수히 많은 민족이 존재하듯이 민족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를 수 있고 민족주의에 대한 내용도 다를 수 있으며 서구에서 말하는 Nation이라는 용어도 국민, 민족, 국가라는 세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로 번역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구경험에서의 민족주의라는 것은 민족이 있고 나서 여러 민족을

한 그릇으로 담아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생성했다는 서구학자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때 우리의 민족주의도 주어진 것으로 놓고 보기 보다는 우리 경험의 특수성 즉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형성되었고, 민족형성에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이 국가건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야하며 이러한 점들이 논문에서도 논의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박박사께서는 한국민족주의의 좌절을 말씀하시면서 주로 현대사회에 국한해서 논의를 전개하셨는데 앞서 김영작 교수도 지적하셨지만 한국민족주의의 허구화·공동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조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민족주의의 좌절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하지 않고 소위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國家民族主義라든지, 밑으로부터의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民衆民族主義를 이야기하다보면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내용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오히려 당위론적인 차원에서의 지적으로 끝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족주의의 내용이라는 것은 소위 계급의 성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민족주의의 내용을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에 관한 지적을 좀 더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서재진 박사의 논문에 관해 말씀드리면 김영작 교수도 지적하셨듯이 북한의 문헌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듯이 선전과 선동의 문건입니다. 북한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문건에 나타나 있는 언술구조를 지식사회학적인 고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당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서재

진 박사의 접근방법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예로 주체사상에 관한 문건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를 修辭的 完璧主義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언술구조가 갖는 배후의 의미를 봐야지만 북한이 민족문제를 바라보는 의도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박사께서는 주체사상의 성격을 지배이데올로기로 규정하셨습니다. 특히 마르크스의 지배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역으로 사회주의 사회에 적용한 것은 상당히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체사상을 지배이데올로기로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 주체사상은 지배이데올로기임에 틀림없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발전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주의적인 자력갱생이라든지 자립적 발전, 균중노선 등 주체사상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내용을 볼 때 이것은 한편 지배이데올로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발전이데올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라든지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새로운 표현속에서 민족문제를 다시 접근한다고 할 때 결국 이것도 발전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단순히 지배이데올로기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발전이데올로기와 관련시켜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에서 민족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977년에 김일성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쓴 문건을 보면 민족공산주의라는 말이 보이며 민족공산주의라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론 오늘날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시각속에서 민족의 개념을 주로 핏줄, 지역, 언어 이 세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경제, 문화, 정치를 민족의 잣대로서 거론하지 못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서박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말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통일이라는 방향에서 볼 때 민족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기준이 필요할텐데 왜 북한은 유독 세가지만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남북의 사상과 제도, 이념의 차이 때문에 결국 경제, 문화, 정치라는 변수를 적용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많이 팔리고 있다는 「역사앞에서」라는 책을 보면 당시 전쟁이 일어난 시점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양심적인 인사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이상주의 인사들이 북쪽으로 가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의 현실은 양심과 이상주의로 대변될 수 없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나의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어자원이 많다는 지적을 하면서 남북이 당시 국제적인 냉전의 기류상황에서 이를 잘 활용했으면 통일로 갈 수 있었을텐데 왜 우리가 전쟁까지 감수해야 했는가하는 대목을 읽고 저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분단된지 50여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그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지에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북체제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보다는 남한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남쪽은 권위주의가 무너지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면 북쪽은 아직도 사회주의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사상

적인 면에서도 남한은 나름대로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하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오히려 주체사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민족주의라는 것을 당위적인 명제로 도입하기 앞서 이러한 상이한 두 체제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갖는 민족주의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두 분의 논문은 주로 민주주의 측면과 결부해서 민족주의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프로그램 경제체제라든지 사회구조에 관해서는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시각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덕규 : 저는 두분의 논문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만 사실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논리가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두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몇가지만 여쭙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논리적인 흐름에서 보면 박종철 박사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이 결국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 둘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합해서 통일된 민족주의로 발전해야 하고 그러한 민족주의를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구현함으로써 統一의 理念으로 民族主義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민족주의를 지향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세력으로 階級連帶的인 결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서재진 박사께서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전반적인 흐름속에 민족주의 냄새가 많이 배어있고 민족주의의 속성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주체사상을 자기합리화하려는 과정속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統一을 위해서는 民族主義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체제를 뛰어넘는 이념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었을때 통일이 가능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박종철 박사께서는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가 변증법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점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辨證法的인 統合이라고 할때 그것의 실체가 무엇이며, 정말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 무척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김영작 교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民族主義와 民主主義가 반드시 함께 병행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인용하신 말씀중에 '민주주의가 꽃피지 않고서는 민족주의가 되지 않고, 민족주의가 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특정한 민족주의일때는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보편적인 측면에서 볼때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 민족주의는 부르조아민족주의와 다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때의 민족주의라는 것이 과연 통합적인 이념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문제로 남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현진 교수께서 지적하신 바

와 같이 민족운동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주체세력인 階級聯合이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모두 다하자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말은 결국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논리로 비약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때 계급연합의 중심세력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담당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인 속성의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서재진 박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박사께서는 민족주의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뛰어넘는 상위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족주의가 과연 상위개념으로 존립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존립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오히려 민족주의가 하위개념 혹은 기반개념이 된 경우는 더러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임교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회경제적인 프로그램이 명백하게 설정되지 않고서는 양 체제를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또는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민족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셨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현재 쓰고 있는 민족이라는 말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족주의란 말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서박사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만, 서박사의 논문에서도 나왔듯이 북쪽사람들은 민족주의를 19세기 부르조아 반동사상으로 보고 있으며 오늘날 전개되는 논리는 민족문제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북쪽사람들은 민족주의와는 전혀관계가 없는 민족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받

아들이고 있는 민족주의와는 다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박사께서 북쪽사람들의 民族主義的인 轉向의 한 가능성을 주체사상을 통해 본 것은 지나치게 그 사람들이 쓰는 말 속에 끌려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되서 제가 여기서 제기하기 거북하지만 서박사께서는 남북한이 통일을 실현하지 못한 현실에서 민족의 복리를 위해 남북한이 상호협력하는 것이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군사경쟁을 지양하는 경제원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서로 같은 핏줄이니까 서로 주고받고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침내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한가슴으로 부둥켜안게 되면 통일의 날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얘기일지 몰라도 우리가 경제적인 원조를 하고 경제교류에 협력하는 것이 북쪽의 어느 특정계층을 위한 결과를 낳는다거나 오히려 북쪽의 체제강화 가능성의 여지를 확대해 줄 수 있으리라는 우려를 해 봅니다. 따라서 경제교류와 같은 측면에서도 우리측 능력의 배양과 정책적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 감사합니다. 세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도 있고, 발표내용을 보완해 준 측면도 있는가 하면 발표내용중의 일부분을 확대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영작 교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작 교수께서는 한말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답게 거시적이고 역사적 차원에서 한국민족주의를 접근하셨습니다. 김교수님의 문제제기는 한국민족주의의 전개를 19세기말 이후 일제식민통치와 해방이후 전과정을 포함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해됩니다. 김교수님의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19세말 근대민족주의운동과 일제시대하에서의 다양한 민족주의운동, 그리고 해방후 분단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제 논문은 한국전쟁이후 남북분단과 체제경쟁이 고착화된 이후 남한에서의 민족주의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통일이념으로서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민족주의의 비활성화와 관련하여 저는 논문에서 남북분단이후 국제적 냉전과 국내적 반공체제의 형성으로 민족주의 이념이 공개적으로 표출될 수 없었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단체제하에서 잠재화되어 있던 통일지향적 민족주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교수님이 지적하신 것과 달리 제 논문이 분단이후 아래부터의 민족주의의 형성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 간의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형성과정과 관련하여 해방 3년기간동안 다양한 정치세력 간 갈등관계가 있었으며 민중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 논문에서는 국제적 냉전과 분단구조에 의해서 위로부터의 국가건설이 진행됨으로써 민족주의가 침잠된 현상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논문은 위로부터

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간의 갈등관계를 조명하였으며, 특히 남북분단과 한국전쟁후 민족주의적 열정이 침잠된후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가 부활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영작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한국민족주의의 탄력적 측면을 도외시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 김영작 교수께서는 통일과 관련하여 남북간 文化的 相容性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념과 체제통합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교수께서 제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 및 문화적 상용성의 개념을 축소해석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논문의 앞부분에서 민족주의의 공통기반으로서의 문화적 동질성은 단순히 자연발생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및 가치체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상부구조라는 포괄적 측면에서 정의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전통문화의 동질성이라는 객관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산업화로 인해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속에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집단운동으로 나타나는 민족주의 특성이 문화적 동질성 형성이라는 개념에 내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를 논한 부분에서도 문화를 단순한 전통문화 측면이 아니라 이념 및 정치·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부구조로서 총체적인 의사소통체계이며 삶의 양식이라고 보고 이러한 가정하에서 남북한간 문화는 통합성을 상당부분 상실했다고 전제했습니다. 즉 문화라는 것은 이념 및 정치체제에 의해서 규정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文化的 相容性의 증가는 단순히 전통문화의 회복이라는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념 및 체제의 상부구조로서 문화통합문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

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는 문화적 동질성이라는 의미를 전통문화의 동질성회복이라는 제한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념 및 가치체계의 통합을 포함하는 포괄적 상징체계의 상용성 증가라는 맥락에서 사용했습니다.

셋째, 김영작 교수께서는 民族主義와 民主主義의 並行問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진덕규 교수께서도 질문 하셨지만,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내재적으로 실제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은 민족주의의 개념에 관해서 언급할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주의는 집단의식을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의 전체이익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며 민족 전체내에서 개인과 집단과의 이익이 어떤 형태로 조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그것이 곧 民族主義의 內在的인 側面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실체로서 그리고 이념적 실체로서 한국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4·19나 1987년 이후 민주화과정에서와 같이 간헐적으로 확대된 정치적 공간속에서 민주주의문제가 제기될때 여기에 병행해서 민족주의 문제가 제기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임현진 교수님은 김영작 교수님의 기본적인 시각과 비슷한 맥락에서 거시적이고 역사사회학적이며 비교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임현진 교수께서는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와 통일후 민족주의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는 過程으로서의 통일 및 민족주의와 目標로서의 통일 및 민족주의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족주의가 일차적으로 한국사회 내부의 문제이며 한국

사회 내부의 여러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측면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過程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민족주의가 남북한 통일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과정으로서의 민족주의는 중요합니다. 동시에 통일미래상의 설정과 관련하여 민족주의는 目標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통일전의 統合過程으로서의 측면과 통일후의 통일미래상이 어떻게 점진적이고 누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 또는 과정으로서의 민족주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과 목표로서의 민족주의를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현진 교수는 독일과 베트남에서 민족주의가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1870년 통일된 근대국가를 형성하였다가 2차대전후 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단일왕조에 의해서 통일국가를 이룬 경험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은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2차대전후 국제적인 냉전체제하에서 분단되었습니다. 그후 베트남은 30여년에 걸친 민족해방전쟁을 거쳐서 통합국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베트남과 한국은 전통적인 봉건국가가 근대화의 충격에 대응하고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분단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현진 교수의 세번째 질문은 민족주의가 左·右派理念을 모두 담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곧 민족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임

교수께서는 민족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정치적인 형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 논문의 「부와 권력의 재분배에 의한 실질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부문에서 간접적으로 시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의 실질적 내용은 대외적으로 국제노동분업과 대내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조건속에서 자본축적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개입과 시장자율성의 적절한 배합, 바꾸어 말하면 국가와 노동, 자본간 협상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교수께서는 다른 논문에서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경제적인 프로그램의 한 형태로서 新組合主義 내지는 民主社會主義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민족주의가 구체적인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시장경제의 틀속에서 자본과 노동간의 협상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남한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통일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예상을 불허하는 형태로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현진 교수님과 진덕규 교수님이 질문하신 階級聯合의 성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민족주의의 당세력에 관해서 농민, 노동자, 중산층 등 여러가지 견해가 있었습시다만, 제가 논문에서 제기한 市民聯合의 개념은 시민의 개념 및 시민사회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이중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일차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이익추구자의 성격과 함께, 사적 이익을 넘어서 공

공성과 시민문화의 헤게모니를 확립해 나가는 공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흐름에 입각한 경제사회적 측면이 있으며, 동시에 그람시(A. Gramsci)가 얘기한 바와 같이 단순한 자본축적의 논리를 넘어서서 상부구조로서 헤게모니를 확보한 공적 영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주도 산업화과정을 고려할때 한국의 시민이나 시민사회가 서구와 같은 성격을 띠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사회의 특수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신중산층, 지식인, 노동자들의 잠재적인 에너지속에서 시민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한국적인 형태의 새로운 市民民主主義 혹은 市民民族主義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진 : 세분의 토론자들이 모두 제가 미처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제 논문을 다시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영작 교수께서는 폐쇄주의에 대한 분석이 많은 반면 대내적 독재체제의 정당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미약해서 밸런스를 잃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족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균형감을 조금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권이테올로기라는 개념만으로는 주체사상을 특징짓는 데 미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현실 자체가 과격한 표현을 쓰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분석 자체에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쓰다보면 북한식의 선전처럼 보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

어질 것 같아서 표현을 절제했습니다.

임교수께서도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배이데올로기의 측면이 강조된 까닭에 발전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이 간과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주체사상이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先次性을 가지고 그것이 경제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며 발전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하나의 論理的인 先次性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자력갱생의 전략이 선택된 것도 결국은 외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소련에서 개인숭배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소련이 지금까지 주던 원조를 단절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력갱생이라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斷折戰略으로서 나왔던 주체사상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발전전략으로서의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주체사상의 논리적 귀결이었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왜 핏줄, 언어, 지역만 언급을 하고 경제나 정치를 민족의 기준대로 사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도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단과 단절을 위해 소련과 중국이 북한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즉 핏줄과 언어면에서 그 나라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개방을 북한은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민족주의를 경제, 정치적인 차원에까지 끌어올리면 자기들의 원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핏줄이라든지 언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민족이 다른 나라와는 언어나 민족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북한은 적절히 이

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교수께서 질문하신 또 하나는 민족주의가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인가 아니면 통일이후의 민족주의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까지를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선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뉘어져 있는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공통적인 이념으로 이을 수 있는 理想的 裝置가 무엇인가 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무력이나 합의, 흡수와 같은 여러가지 통일방식의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를 볼 때 저는 우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진적인 개혁, 개방을 통해 남북한이 통합을 할 수 있다는 정책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경우 현재 견고하게 닫혀져 있는 문에 개혁의 바람이 들어가면 초기단계에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改革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서 전체주의로 특징지워지는 북한사회의 어느 한 부분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면 연쇄작용을 통해 점진적인 체제의 弛緩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구사회주의 국가나 소련과 같은 경우 처음에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조그만한 개혁을 시도했는데 그것의 여파가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체제를 붕괴시키고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졌듯이 북한에도 조그만한 개혁의 바람을 도입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통일의 방식이 무엇이나라고 할 때 북한에서 중앙권력이 장악할 수 없는 불확정성의 단계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일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은 올바른 전략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좌·우파를 다같이 담을 수 있는 민족주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이며, 하나의 上位概念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민족주의를 이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具體的이고 實踐的인 次元에서 남북한의 전체민족에게 이익이 되는, 다시 말해 남북한에 동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남한과 민족을 포괄하는 민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이념과 체제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어져 있지만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곧 남한과 북한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북한체제에 변화를 가지고 와서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구체적으로 민족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진덕규 교수께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남북한이 통일을 실현하지 못한 시점에서 남북의 협력, 특히 북쪽에 대한 경제원조가 북쪽의 어느 일 특정계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혹은 김일성의 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는 견고하고 통제된 북한체제에 어느 정도 자유화의 바람, 개혁의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최초의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이 북쪽의 체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특히 네번째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남한과 북한이 선진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남북통일을 해야하는 이유이며 민족주의가 발동되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한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고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볼 때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한반도 한쪽에는 유례없는 전체주의가 만연하고 있느냐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것은 곧 북쪽에까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며, 북한에까지 민주주의가 확산·보급되지 않고는 한민족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로 든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배경은 이러한 상황에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봅니다. 흔히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경제적인 요인, 즉 풍부한 노동력이라든지 상품시장의 개척의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요구에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북쪽에서 먼저 이루어졌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논리의 정당성을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남쪽에 존재하는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인 차원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북쪽을 제외한 한국민주주의는 영원한 절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임현진 교수께서 제기한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박봉식 교수 질문중 통일문제를 한반도화하는 것이 무슨 뜻이며, 이것이 김일성의 10대강령과 유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일성이 주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거부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김일성이 주장한 것중 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남한과 북한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남한과 북한을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북한에서 선전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현재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그런 식의 주장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도 당면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대단결의 문제를 우리가 매개체로 삼아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남북한의 어떤 공통점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까지 거부해 왔던 민족주의를 다시 복원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민족주의 개념에 대해서 그 이전의 階級主義的 觀點에 근거해서 얘기한다거나 아예 민족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더욱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에서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는 해도 최소한 민족주의의 개념을 우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수용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대화가 가능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작 : 제가 추가로 간단히 몇가지만 말할까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토론자, 발표자 모두가 질문하고 토론하는 큰 문제중에서 제 생각을 한두가지만 보완할까 합니다. 적어도 현시점에서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를 논할때 원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중의 하나는 왜 통일의 이념으로서 제기되는 것이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 혹은 민족주의라는 심볼이나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시 통일의 심볼로서는 민족문제 혹은 민족주의라는 개념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리라고 보며, 이점에 있어서는 두분 발표자와 대체로 비슷한 입장입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열기와 객관

적인 통일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즉 분단이라는 상황이 존재하는 한 민족문제, 민족주의라는 문제는 학자들이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던간에 등장하는 객관적이고 당위적인 필요성입니다. 따라서 민족주의라는 심볼이나 민족주의가 등장하는 것은 그 내용에 통시대적인 보편타당성이라든지 범인류적인 진리성이 들어있다고 보다는 한국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역사적인 특수성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라는 기본적인 과제가 실현되지 않는 한 이는 계속 제기되는 문제로 남아있게 되며, 또 그렇게 등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해방 식민지 시대 이전의 근대화는 반침략·반봉건이라는 것으로서 근대국가를 형성해서 자주독립의 명맥을 유지하겠다는 과제가 있었지만, 식민지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권회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주의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던간에 저항민족주의가 우리민족의 역사적인 상황이 요구하는 일차적인 과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을때에는 원초적으로 우리민족이 놓여있던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중적인 제약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분단이고 하나는 점령입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주의적인 과제인 자주독립국가의 건설과 통일된 독립국가의 형성이라는 제1차적인 과제와 분단과 점령이라는 이중의 족쇄속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점령이라는 상황은 극복했지만 분단이라는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민족주의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민족주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이면에는 해방정국에서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보다는 보편적인 이데올로기 즉 체제간의 문제가 남북에서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적인 민주주의가 양

체제에 우선적으로 정착됨으로 인해서 민족주의가 空洞化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민족주의가 등장되는 것은 통일의 심볼로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정권이 민족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통일의 의지를 표출시키고 그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주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논의될 수 있는 것이 통일과 체제간의 문제입니다. 진덕규 교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저는 1990년대라는 역사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남쪽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해방정국은 두개의 민주주의가 대립하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세계사적 측면에서 볼 때 두개의 대립되는 民主觀 중에 어느 것이 진짜냐는 것에 대해 문명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심판이 내려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체제관이 우선시되는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어느 쪽의 민족주의를 그 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개인 또는 권력 이데올로기적인 선택의 측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상황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민주관에 대한 우열승패가 판가름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속에 좌·우모두를 담는다는 발상은 진취적인것 같지만 조금 비현실적이면서 공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社會主義的 民主觀은 정당정치에서는 일당독재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경

제에 있어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수용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체제여야 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체제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쪽에서도 사회주의적인 요소중 평등이라는 가치구현에 있어서 목표와 그것을 구현하는 여러가지 정책수단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진과세, 토지공개념과 같은 여러 형태의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조금 수정하여 근간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이지만 사회주의적 가치관중에서 수용할만한 정책수단을 통해 보완하는 형태의 민주관으로 궁극적인 통일상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북을 막론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統一像은 통일방안의 과정만 있지 궁극적인 통일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統一像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출시킬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올바른 대북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찬성하는 바이지만, 이는 동시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임수경 문제나 이인모 노인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측의 양보가 북쪽의 본질적인 개혁·개방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굳건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핵전략에 관한한 북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얻어냈으나 우리는 이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이 아직 없습니다. 이러한 점이 주체사상과

연결된 민족개념이 일반적 혹은 보편적인 민족주의 개념 혹은 민족개념과 연결되기 어려운 고질적인 병폐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폐쇄성, 반개혁성, 독재성을 탈피하는 조건하에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만 대북전략도 올바르게 추출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식 :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여러가지로 정리하는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지면으로 질문들어온 것에 대해 간단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서재진 : 플로어에 계신 분중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용해할 부분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액면 그대로 용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주체사상의 단절이나 차단과 같은 개념이 좋게 보아서는 대외적인 자주로 볼 수 있지만 대외적인 자주라는 것은 북한에서 쓰는 저항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외세에 대한 경계와 연결되어 있는데, 단절과 차단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참여속에서 외세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북한의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단절이나 폐쇄같은 것은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라 봅니다. 참여속에서 외세를 이기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봉식 : 감사합니다. 그외에 한두명의 서면 질문이 더 있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두분의 대답과 토론과정에서 대부분 해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진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서박사께서 추가로 대답한 부분이지만 저에게도 개념상 통일보다 민족공동체로서 통합이라는 개념의 사용이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적합하다 혹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전에 현시점은 우리나라 통일의 과정에서 통합이라는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고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박종철 박사께 정책대안 이상의 실천과정적 방법으로서의 한민족통일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이는 한국민족주의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토론과정에서 설명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보는 남북통일시기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따라서 대답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바로는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시기를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1988년에 汎民聯을 출범시키면서 1995년에 통일을 이룩한다고 그 시기를 제시했었습니다. 그것이 1995년이 된 이유와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통일문제와 관련해 시기를 명백히 정한 것은 김일성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북한이 최근 제시한 민족대단결 10대강령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汎民聯 方法을 통한 1995년까지의 통일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질문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토론과 발표 중에 제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못드려서 토론 자체도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사회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附錄：會議概要〉

開院 2周年 紀念 國內學術會議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日 時：1993年 4月 8日(木) 14：00~18：00

場 所：타워호텔 렉스룸

- 13：30~14：00 登 錄
- 14：00~14：05 開會辭：李秉龍(民族統一研究院 院長)
- 14：05~14：45 會 議
- 司 會：朴奉植(서울大 教授)
 - 主題發表：
 1. 民族主義의 概念 및 韓國民族主義의 特性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朴鍾喆
 2. 主體思想과 民族主義의 關係……徐載鎮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 14：45~15：00 Coffee Break
- 15：00~17：00 討 論：金榮作(國民大 教授)
朴玄鎮(서울大 教授)
陳德奎(梨花女大 教授)
- 17：00~18：00 다과회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
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
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
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열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
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
度 中心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と 南北韓 關係 : 1991~1992
92 統一環境と 南北韓 關係 : 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2號(1992.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資 料〉

- 92-01 統一 與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與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세미나시리즈 93-01

| | |
|-----|---------------------------|
| 發行處 | 民族統一研究院 |
| 編輯人 |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 |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
| | 전화:237-9288, FAX:232-5341 |
| 印刷處 |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 印刷日 | 1993년 5월 일 |
| 發行日 | 1993년 5월 일 |
